

이토록 특별한 한강 **한강의 물놀이**

스포츠 웨이브

관광으로 만난  
스포츠의 매력





# #

## 해시태그 이벤트

여러분이 서울에서 주로 운동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나만의 서울 운동 맛집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1. 나만의 서울 운동 맛집에서 열심히 운동한다. 2. 해시태그와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한다. #서울시체육회 #서울스포츠 #나의운동명소○○○
3. 서울시체육회 SNS를 팔로우한다. ▶ 인스타그램: @seoul\_sports\_council ▶ 페이스북: 서울특별시체육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Contents



**발행일** 2023년 7월 1일  
**발행인**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편집인** 정규혁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진욱 동국대학교 교수  
**검수** 황영찬 홍보마케팅 추진사업단장  
**편집** 홍보팀 윤영하, 서승환  
**등록번호** 서울 라 4818  
**발행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news.seoulsports.or.kr  
**웹진**  
**전화** 02-490-2700  
**디자인·제작** 코콤포터노벨리㈜  
**표지일러스트** 윤예지

본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 04 스포츠 웨이브

관광으로 만난 스포츠의 매력

- 1 스포츠케이선, 관광지에서 즐기는 탐의 의미
- 2 외국인 관광 콘텐츠로 거듭난 서울의 산,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탐방기
- 3 올림픽 시설에서 보이는 스포츠 관광

### 14 이토록 특별한 한강

한강의 물놀이

### 24 서울체육 70년, 레전드를 만나다

15년 만에 현역 복귀,  
 새로운 한판승을 향해  
 이원희 유도선수

### 28 서울에서 뛰는 세계인

프랑스에서 온  
 프랑수아&프레드릭이 들려주는  
 서울의 달리기와 자전거

### 32 School Of Sports, SOS!

같이의 즐거움, 넷볼을 시작으로!  
 서울대동초등학교 이소영 교사

### 36 變變 스포츠

올림픽과 e스포츠의 거리감 있는 동행

### 38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

당신(撞神)들의 당구 시간  
 당구 동호회 우당탕

### 42 스포츠는 지금

스포츠 에이전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된 현실

### 46 글로벌 스포츠 현장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포츠판 중국몽 될까?

### 48 아무튼 스포츠

'패션 코어'를 스포츠로 채우다

### 50 숫자-LOG

끝나지 않은 농구 열기! 2022-2023 KBL

### 52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54 생생스포츠

### 58 SSC 뉴스

### 61 SSAD 뉴스

### 63 지그재그 낱말퀴즈

퀴즈판에서 정답을 찾아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 관광으로 만난 스포츠의 매력

최근 한강을 달리는 외국인, 등산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눈에 띈다.  
내국인들 사이에서는 스포츠키레이션(Sportscation)이 열풍이다.  
이처럼 스포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스포츠의  
범위가 날로 확장하고 있다. 온 세계가 스포츠와 관광의 시너지를  
실감하는 가운데, 국내외 스포츠 관광에 관해 살펴본다.





# 스포츠케이션, 관광지에서 흘리는 땀의 의미

곧 더위 먹은 세상이 도래한다. 물에 발만 담그거나 단순히 빠지기만 하면 재미없다. 침범침범 건너 뚱뚱 빠져야 순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우리말의 의태어와 의성어는 참으로 매력적이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다. 바로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탄생한 신조어다. 몇 해 전부터 여름이 다가오면 이 단어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바로 ‘스포츠케이션’이다.

##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휴가

일거양득(一舉兩得), 일거다득(一舉多得). 한자어를 차용해 한 가지 일을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에 비유적으로 쓴 표현이다. 스포츠케이션(Sportscation)은 ‘스포츠(Sports)’에 ‘휴가(Vacation)’를 섞은 단어다.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 휴가를 보낸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휴가를 보내기 위해 스포츠 활동을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휴가를 관통하는 테마가 스포츠인 것이다.



제주올레길은 총 21개 코스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에만 9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스포츠케이션은 시장(Market)에 늘 민감한 마케터들에게 한 번쯤은 손대고 싶은 영역으로 부상했다. 한편 2022년의 주요 키워드로서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가 있다. 건강하면 기쁨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기쁨을 위해 감내해야 할 몫이 만만치 않았다. 절제된 일상에서 오는 압박감, 다이어트를 위한 고통 등이 따랐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왜 힘까지 들여야 할까. 생각을 조금 바꿨다. 즐겁게 하면 될 일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일상에서 변화를 찾기도 했다. 아예 벗어나는 일탈이 아닌 아주 조금의 변화다. 그건 현대 인류가 단 한번도 겪지 못했던 코로나19가 가져다준 패러다임의 변화이기도 하다.

## 기억의 망각

우리에게 기억과 망각이 있다. 학습 경험을 저장해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기억이다. 망각은 기억 자체가 사라져 재생

되지 않는 현상이다. 코로나19로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라도 TV를 통해 지켜본 게 다행이었던 오래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 감염병의 공포를 대응책 없이는 이겨낼 수 없다는 뼈저린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강렬한 기억으로 예전 기억을 꺼내기가 어려울 때 간섭현상을 통해 망각의 길로 들어선다. 팬데믹 이후 모처럼 찾아온 시기다. ‘스포츠케이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힘겨웠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참여 활동 방식에 따라 스포츠 관광을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수동적 스포츠 관광(Passive Sports Tourism)과 능동적 스포츠 관광(Active Sports Tourism)이 있다. 각각 다시 분류하면 전자는 축구 관람과 같은 경쟁적 스포츠 관광과 스포츠 박물관 견학 등의 비경쟁적 스포츠 관광이다. 후자는 골프와 같은 경쟁적 스포츠 관광과 서핑,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등의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비경쟁적 스포츠 관광이다. 수동적 혹은 능동적 스포츠 관광은 지역마다 갖는 특수성과 매력을 더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스포츠케이션’ 트렌드가 폭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하기 위해 휴가를 보내는 스포츠케이션은 능동적 스포츠 관광 유형에 속한다. 몇 해 전부터 급부상한 이 트렌드의 가능성을 찾아가 보자. 그 지점에서 흘리는 땀의 의미는 무엇일까.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여름이면 서핑, 패들보드 등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 모든 세대의 갈망, 건강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규칙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은 주 2~3회로 33.7%를 차지했으며 주 2회 이상 49.8%, 주 1회 이상은 60.8%로 나타났다. 전혀 하지 않는 비율도 28.7%다. 운동 방법을 모르거나 활로를 찾지 못한 잠재적 소비자군도 포함이다. 연령대별로 주 2회 이상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70대가 53.4%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3.3%로 뒤를 이었다. 60대 51.8%, 40대 50.3%, 30대 48.4%, 50대 48%, 10대 41.4%로 나타났다. 최근 ‘스포츠케이션’ 트렌드 보도 기사는 MZ세대에 초점을 뒀다.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확장돼야 할 의미 있는 수치가 이기도 하다. 20~30대의 전유물로서 ‘스포츠케이션’을 이해하면 시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스포츠’와 ‘휴가’란 조합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세대의 갈망인 건강이란 테마를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진 않을까. 이어 생활체육 종목을 살펴보면 걷기 41.4%, 등산 13.5%, 보디빌딩 13.4%, 요가·필라테스·태보 7.2%, 골프 6.8%, 자전거·사이클·MTB 6.2%, 축구·풋살 5.8%로 집계됐다.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은 민간 시설 30.3%, 공공 시설 27.9%, 학교·직장 시설 10.7%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는 ‘스포츠케이션’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눈에 띄는 종목과 시설을 대략적으로 이해했다. 앞서 언급한 잠재적 스포츠 소비자와 눈에 띄지 않는 종목·시설까지 염두에 두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자.

## 시장의 진화

팬데믹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걷고 있을

무렵, 세계적인 경영 마케팅 학자인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는 새로운 진화를 제시했다. 5.0 시장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장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제품 위주의 마케팅을 하는 1.0 시장이다. 표준화·전문화·단순화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품질을 기대하기 전에 경기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경기 불만으로 소구병이 날아다니고 깨지곤 했다. 둘째,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하는 2.0 시장이다. 시장 환경이 독점에서 벗어나 경쟁사의 제품이 등장하고 소비자 의견을 경청하는 시기다.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팬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 프로스포츠 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종목끼리도 소비자 확보를 위





2021년에 실시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케이스를 즐기는 MZ세대 사이에서 라이딩은 유일하게 코로나19 전보다 운동 경험률이 증가한 종목이다

한 경쟁을 하게 됐다.

셋째, 인간 중심의 마케팅을 하는 3.0 시장이다.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선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 진심 어린 감동을 줘야 한다. 체험 마케팅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중요해졌다.

넷째,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4.0 시장이다. 대표적으로 옴니채널(Omni-Channel) 마케팅이 있다. 이곳에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격과 서비스의 동일함을 추구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토리두잉(Story-Doing)을 한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구단주도 자기표현을 거침없이 한다. 유통회사가 야구단을 인수(2021년 SSG 랜더스 출범)하면서 온·오프라인 시장으로 확장해 멀티채널을 가동하는 전략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5.0 시장이다. 고객이 필요한 구성 요건을 기술 혹은 기계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개념이 코로나19로 침체됐다가 극복하는 과정(2021년)

에서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AI, 빅데이터 등의 기계·기술에 의해 찾고 분석하는 수준까지 다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행동의 기본적인 동기와 태도, 가치 등을 읽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다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자와 유통자 내에서 전략을 구상하는 마케터의 영역은 그 중요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험은 실제 세계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접목될 때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 물론 고객 의견을 듣는 것, 즉각 응대하는 것, 이야기를 만들고 함께 행동하는 것, 공동 창조(Co-creation)란 개념이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본 주제인 ‘스포츠케이션’을 놓고 무엇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까. 필립 코틀러의 얘기를 좀 더 빌려 세대의 변화를 접목해 살펴보자.

### 세대의 변화 속 ‘스포츠케이션’

트렌드 변화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세대(Generation)를 분류하고 특성을 규정짓는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마케터들은 세대별 구분을 통해 시장 세분화의 기초를 마련한다. 글로벌 정세와 맞물려 몇 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급성장을 통해 소비력이 강한 한국 사회에 적용해도 무방하다. 최대의 마케팅 본고장인 미국에서 분류한 이 해법을 따라가 보자.

첫째, 베이비붐세대다. 1946년에서 1964년에 태어난 세대로 세계전쟁 종료 후 많은 지역에서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그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래 살면서 은퇴를 미루거나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한다. 새로운 기술보다 기존의 사업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X세대다.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현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구매력과 영향력이 가장 크다. 사회에 진출할 무렵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환경의 경계에 있게 됐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표현 방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했다.

셋째, Y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에 능통하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데 매우 개방적이다. 기성 브랜드보다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내의 구성원을 포함한 동료들 더 신뢰한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존 세대보다 제품과 서비스를 다량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넷째, Z세대로서 이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1997년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 6월 1일, 관광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고고양양(GOGO YANGYANG)’을 출시하며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부터 200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밀레니얼세대와 합쳐 MZ라는 마케팅 용어로 불리고 있다. 태어난 직후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기기를 원어민처럼 구사한다고 해서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도 한다.

MZ의 특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무한한 콘텐츠를 소비하길 선호한다. Y세대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지만 세련되고 여과된 이미지가 아닌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중시한다. 있는 그대로에 초점을 맞추고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통제하길 원한다.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개인화와 맞춤형의 편리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알파세대는 2010년부터 2025년 사이에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나서 성장할 세대다. 이들은 급속하게 변

화하는 도시환경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게 된다. 스크린을 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기술을 자기 삶에서 꼭 필요한 일부이자 자신의 확장으로 여길 것이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스포츠케이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험해볼까. 각자의 몫이다.

### 스포츠 관광 목적지에서 즐기는 땀

관광 목적지(Tourism Destination)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 유인물(Attraction)을 경험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며 여행하는 장소이다. 스포츠 관광 목적지(Sports Tourism Destination)는 자연스럽게 유형과 무형의 스포츠 관광 유인물이 존재하는 장소가 된다. 우리만의 스포츠 관광 목적지의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스포츠와 휴가의 조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땀 흘리게 하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초고속 압축 성장을 따라가느라 겸양을 배울 겨를도 없었다. 오로지 남을

밟고 올라서야 인정받지 않았던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으면 질적으로 높은 스포츠를 즐겨야 한다. 감염병 환경을 잘 대처하고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활짝 펼 수 있는 트렌드를 만끽해보자. 자신만을 위한 ‘건강한 기쁨’을 누리야 한다.

직장인 퇴근 시간의 단거리 마라톤 대회, 신체활동과 건강진단 서비스까지 포함된 리조트, 걷기 코스와 맛집 탐방을 겸용한 지역 상품 등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 공공·민간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스포츠케이션은 모든 세대를 포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트렌드이다. 민간 영역 혹은 특정 세대의 트렌드로 국한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체육·스포츠 정책으로 자리 잡아 지역 스포츠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기대한다.

곧 다가올 여름, 더위를 먹은 세상이라고 앞서 표현했다. 이는 곧 공기 중에 머금은 수증기가 많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의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스포츠케이션을 즐기고 우리가 흘리는 땀의 가치를 알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적 가치까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바란다. 이번 여름, 어디 가서 침범거리고 풍덩 빠져볼까. ☀

글을 쓴 **문개성**은 원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로서 공학, 예술학, 체육학 전공으로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복합 현상에 관심이 많다. ‘스포마니acs: 사피엔스가 걸어온 몸의 길(2022 세종도서 우수학술)’, 스포츠 마케팅 4.0: 4차 산업혁명 미래비전, 스포츠 경영: 21세기 비즈니스 미래전략 등 논문과 저서 약 60편의 저작을 발표했다.



# 외국인 관광 콘텐츠로 거듭난 서울의 산,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탐방기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K-등산이 한류 열풍의 싹을 강자로 떠올랐다. 등산은 중장년층의 취미라는 말은 이제 아주 오래전 이야기. 등린이(‘등산’과 ‘어린이’의 합성어), 산스장(‘산’과 ‘헬스장’의 합성어)의 신조어를 유행시킨 2030세대를 넘어 외국 관광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서울의 산이 관광 콘텐츠로 거듭났다.

**한국의 산을 찾는 사람들**  
어느 수요일 아침, 우이신설선에 몸을 실었다. 종착역에 가까워질수록 지하철안의 사람은 줄어들었다.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종착역인 북한산우이역에 마침내 도착했고, 주변을 둘러보니 등산화와 등산복 등 등산 용품으로 몸을 치장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그들을 따라 2번 출구로 나왔을 때,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푸른 하

늘과 초록색을 가득 머금은 나무들이 넓게 난 사거리를 한 가득 품었다. 서울의 풍경이라 하면 높은 건물과 복잡한 차들로 정신없는 도로, 수많은 사람으로 꽉찬 거리를 쉽게 떠올리는데, 이곳은 달랐다. 하지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내뱉으며 온 호흡으로 도심 속 자연을 느끼자 낮은 풍경은 이내 포근한 안정을 되찾아줬다. 아, 이미 눈치 챈 분도 있겠다. 북한산우이역 2번 출구에서 나와 아직 단 열 걸음도 채 걷지 않았다. 평소 서울 한가운데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풍경이 발목을 붙잡았지만 목적지인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로 향해 발걸음을 서둘렀다. 가는 동안 북한산으로 향하는 등산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중에는 외국인도 여럿 보였다.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에 도착했을 때, 오는 길에 봤던 외국인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 등산 관광객을 맞이하는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2022년 3월 3일, 서울시 강북구와 서울시관광재단,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B사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강화 및 등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일환으로 2022년 6월 22일부터 3개월가량 강북구 우이동에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를 시범 운영했으며 9월 1일 정식 개관해 국내외 산행인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22년 말까지 내·외국인 약 4140명



등산체험프로그램은 동행하는 직원의 사전 교육 후 시작된다

이 방문했으며 2023년 16일 기준, 누적 방문객만 2020명에 달한다. 올해 3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외국인 대상으로 ‘등산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렇다. 앞서 방문했던 어느 수요일 아침도 등산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이었다. 9시 30분이 되자 센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외국인 6명이 모두 모였다. 등산관광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중 한 명인 러시아 국적 외국인 알레나 말지나(Alena Malgina) 씨는 코스 출발 전, “러시아에는 잘 갖춰진 등산 프로그램이나 안내 시설이 없어 쉽게 등산에 도전하지 못했는데 서울에는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돼 있다”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같은 날 참가한 미국 국적 외국인 에이든(Aidan) 씨는 “지난주 수요일에도 참가해 진달래능선을 걸었는데 등산을 하며 서울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다른 외국인 참가자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다시 찾게 됐다”고 말했다.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 출발하기 전에 ‘오

늘의 코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0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운영되며 소귀천 코스, 영봉대 코스, 백운대 코스로 구성됐다. 이날의 코스는 영봉대 코스였다.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코스로 육모정지킴이에서 출발해 영봉대를 지나 하루재까지 가는 코스다. 쉬엄 쉬엄, 쉬는 시간을 포함해 약 3시간 30분이 걸린 이 코스는 등산관광 체험 프로그램 코스 중 비교적 난도가 낮은 코스에 속한다. 서울산의 정산을 정복하고 싶다면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백운대 코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며, ‘깨알 홍보’도 잊지 않는 직원이었다.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는 수요일 정기 프로그램인 등산관광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월 1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별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 상생의 취지도 담겨 있다. 지난 5월에는 북한산 둘레길 코스를 밟고, 인근에 있는 절인 보광사에서 1일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도심 7대 명산 챌린지’도 운영한다.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관악산, 불암산, 아차산, 남산, 도봉산, 수락산, 청계산 중 7개의 산을 등반 후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인증하는 챌린지로 모두 오른 자에게는 완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 산을 품은 도시, 서울

서울은 대도시임에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내외만 이동해도 쉽게 산에 오를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나 독일 베를린 같은 대도시에서 산에 가기 위해서는 5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서울은 접근성이 뛰어나다. 산을 품고 있는 세계 유일한 수도인 셈이다. 여기에 다양한 고도의 산이 있어 난이도를 선택함에 따라 등산객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한편, 지난 2022년 5월 10일에는 청와대 개방과 함께 북악산 등산로가 54년 만에 개방됐다. 칠궁 뒷길, 춘추관 옆길, 금용연수원 인근에서 출발하는 북악산 등산로 신규 개방 구간은 왕복 1시간 내외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코스에 ‘K-클라이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이 코스를 두고 “도심에서 양복을 입고 있다가 바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산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수도는 서울이고, 청와대다”라고도 말했다. 이처럼 서울은 지금 K-마운틴을 찾는 내외국인들로 인해 K-등산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는 지난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그룹의 등산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올림픽 시설에서 보이는 스포츠 관광

세계적인 스포츠 관광 도시인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와 캐나다 리치먼드시는 인구 20만 남짓의 도시들이다. 강릉보다 인구가 적은 이 도시들의 스포츠 관광 정책은 올림픽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에서 시작된다. 올림픽 유산, 훌륭한 자연과 교통 환경,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진 문화 강국인 대한민국, 어쩌면 우리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 스포츠가 관광화되는 과정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2015년, 필자는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 올림픽의 유산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둘째, ‘올림픽의 유산을 강원도의 유산으로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프로젝트의 핵심 프레임 워크로 삼은 세 가지 개념은 스포츠 시설의 공공성과 상징성, 수익성이었다. 이는 올림픽 시설이 도시민의 행복 자산으로 활용되는 공공성과 시설을 보며 누구나 올림픽을 기억하고 그때의 영광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성, 그리고 앞선 두 가지를 통해 압도적인 방문자 및 사용자를 유치하는 수익성의 극대화가 핵심 개념이다.

무형성, 비예측성, 소멸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가 ‘관광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리적인 형태가 없

는 스포츠가 관광화되는 것은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콘텐츠들이 관광의 대상으로 소비된다는 것이다. 김슨(Gibson, 1998) 등의 학자는 이를 스포츠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간접 관람(소비)하는 것,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열렸던 지역 및 시설을 관광하는 ‘노스텔지어(향수)’ 관광이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스포츠 관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스포츠 시설의 존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보수 및 발전의 선행이며, 충분조건은 해당 시설 활용의 극대화일 것이다. 즉, 스포츠 관광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상징성, 수익성이 있는 스포츠 시설을 개발하고 발전해야 한다. 더불어 이벤트 등의 개최와 콘텐츠 개발로 이용객과 방문객을 극대화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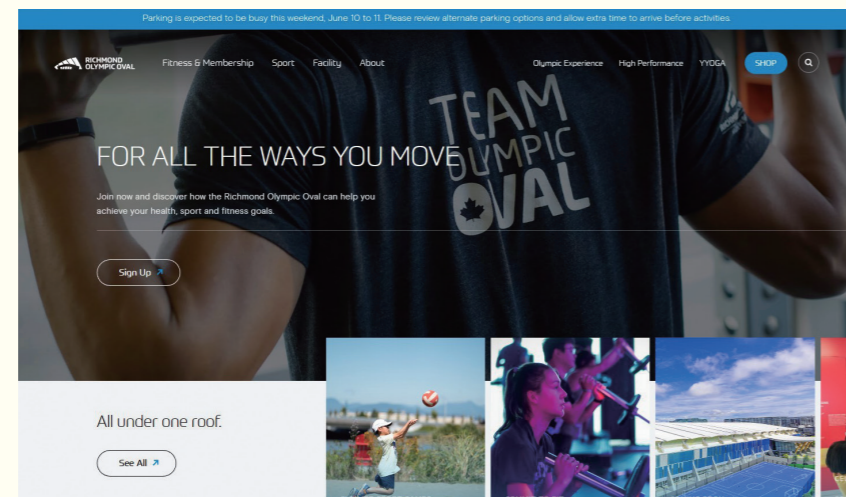
## 올림픽 시설이 스포츠 관광으로?

스포츠 관람과 참여를 아우르되 무엇보다 국내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노스텔지어 스포츠 관광을 중심으로 필자가 직접 방문했던 대표적인 스포츠 관광지 두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림픽의 사후 활용’이라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와 캐나다의 리치먼드시이다.

올림픽을 치렀던 대부분 나라에서 올림픽 이후 활용되지 않는 시설들이 국가적·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The Richmond Olympic Oval)’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장으로 사용됐다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은 올림픽 이후 용도에 중점을 두고 지어졌으며, 현재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관광객을 위한 스포츠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https://richmondoval.ca/>)



우리나라도 강릉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시설들을 활용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스포츠 관광’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솔트레이크시티는 기존 시설(공공)이 사용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이었던 2022년에도 미국 유타주에 있는 올림픽파크 한 곳에만 1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했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는 60% 이상이 해외 관광객이었다. 올림픽 빙상장인 오벌(Oval)은 하루 20시간씩 운영되고 있을 만큼 호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울고 웃으면서 즐기는 Zipwire와 익스트림 튜빙(Extreme Tubing) 등 솔트레이크시티는 올림픽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스포츠 참여와 관람 및 노스텔지어 관광이 절묘하게 결합한 스포츠 관광 명소로 통하고 있다. 캐나다의 리치먼드시도 마찬가지다. 리치먼드는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밴쿠버 옆의 작은 도시이지만 올림픽 빙상장(Richmond Olympic Oval)을 유치하면서 스포츠 관광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에만 63회의 국내의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약 6일에 한 번꼴로 대회를 개최해 참여

형 스포츠 관람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리치먼드시는 지난 2015년 11월에 IOC가 인증한 북미 유일의 올림픽 박물관인 ROX(Richmond Olympic Experience)를 개관했다. 이후 2019년에만 관광객이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캐나다 서부 지역에 속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스텔지어형 스포츠 관광지가 됐다.

##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솔트레이크시티와 리치먼드시는 올림픽 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스포츠 투어리즘의 활성화로 도시 홍보와 수입 증대, 도시민의 자부심 고취 등의 무형의 효과를 얻고 있다. 올림픽의 상징성이 녹아 있는 시설을 활용해 노스텔지어와 관람형 스포츠 관광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되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과 동시에 참여형 스포츠 콘텐츠 개발로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를 얻고 있다. 이 작은 도시들이 국제적 명성을 얻기까지 10년 넘게 같은 책임자가 책임 경영을 맡고 있을 만큼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 있

었고, 숙소를 짓고 선수촌을 재활용한 장기 투숙객 유치로 경제 효과를 극대화했다.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올림픽 이후 시설 활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자부심이 큰 동력이 됐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올림픽 시설 중 현재 남아 있는 올림픽의 유산은 많이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에는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경포대해수욕장이 있고 서핑과 같은 새로운 놀이 문화의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과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에 등재된 정선아리랑이 존재하며 강릉까지 KTX가 놓였고 근처에는 양양 공항도 존재한다.

서울의 위상도 대단하다. 남아 있는 올림픽 유산을 매개로 한 스포츠·문화·자연환경의 융복합은 올림픽이 열렸던 서울과 강원도를 스포츠 관광의 세계적인 클러스터(Cluster)로 만들 만큼 충분한 자질을 제공한다. 상징성이 남아 있는 시설과 훌륭한 자연, 교통 환경, 넘치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문화 강국. 이 퍼즐들을 지혜롭게 조합하고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

글을 쓴 박성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수업의 지식이 곧 현장의 실제임을 입증하는 데 온 힘을 쏟는 정열파 교수이자 ‘스포츠산업 현장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는 철학을 가진 강성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 한강의 물놀이

여름이 오면 많은 시민이 철썩이는 파도와 함께 불어오는 바람을 찾아 바다로 떠난다. 하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시민도 있을 터. 그럴 땐 가장 가까이 있는 한강을 찾아보자. 예로부터 서울 시민의 한여름 피서지가 되어준 한강은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더위를 물리쳐 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서울 시민의 땀을 식혀주고 있는 한강의 물놀이 이야기다.



### Spot 1

난지 한강공원 물놀이장  
마포구 상암동 482-182

### Spot 2

망원 한강공원 수영장  
마포구 망원동 312-6  
(성산대교 복단 공사로  
2028년 이후 개장 예정)

### Spot 3

양화 한강공원 물놀이장  
영등포구 양화동 1-4

### Spot 4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82-9

### Spot 5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  
서초구 잠원동 121

### Spot 6

독섬 한강공원 수영장  
광진구 자양동 112

### Spot 8

광나루 한강공원 수영장  
강동구 천호동 351-1

### Spot 7

잠실 한강공원 수영장  
송파구 잠실동 1-1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단장 후  
2024년 6월 개장 예정)



정보제공: 한강사업본부

### 2023 한강수영장 안내

- 이용장소 광나루·독섬·여의도·잠원 야외수영장 / 난지·양화 물놀이장
- 운영기간 2023. 6. 23.(금) ~ 8. 20.(일)
- 이용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동안은 입수 불가, 점심시간은 수영장마다 상이)
- 휴식시간 매시 15분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중 입수 불가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





1934년 7월, 독섬유원지에 수영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강수욕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다

### 해수욕 아닌 강수욕, 한강 백두대간 모래사장

과거에 필자가 한강에서 트레킹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의 이야기다. 용산 쪽을 가리키면서 과거 서울 시민들은 해수욕이 아닌 강수욕(江水浴)을 즐겼다고 설명을 했다. 대부분의 젊은 수강생은 고개를 아우뚫으며 '강수욕'이 무엇인지 물었다. 바다에서 하는 물놀이가 해수욕이라면 강물에서 하는 물놀이를 강수욕이라고 부른다는 답변을 마칠 즈음, 나이가 지긋한 한 수강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강수욕 체험기를 풀어냈다. "그때는 여름만 되면 한강으로 물놀이하러 갔었어요. 노들강변에 모래사장이 기가 막히게 펼쳐졌거든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렇다. 변변한 냉방 장치도 없었던 그 시절,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좋은 피서지였다. 사람들은 드넓은 모래사장에서 수영도 하고, 모래찜질도 하며 물놀이를 즐겼다. 당시의 사진들은 동해안의 어느 해

수욕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은 언제부터 물놀이를 하러 한강을 찾았을까? 해수욕이든, 강수욕이든 모래사장이 있어야 입수할 수 있다. 거친 돌밭에서 물에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다. 물가에 있는 바위에서 낚시를 하지, 물놀이를 하지 않는 법이다. 한강은 아주 오래전부터 강수욕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예전 항공사진을 보면 '이게 한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드넓은 금빛 모래사장이 한강 곳곳에 펼쳐져 있었다. 용산, 독섬, 광나루가 대표적인 곳이다. 이렇게 모래사장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건 서울이 한강의 하류에 있기 때문이다. 태백산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금강산 내금강에서 발원한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합수돼 한강이 된다. 남한강이 375km, 북한강이 317km이니 강물이 흘러오는 와중에 수많은 퇴적물을 함께 실어 온다. 퇴적물이



조선시대에 나타났던 독섬유원지는 뱃놀이 장소로도 유명했다 (1956년 독섬유원지)

그렇게 켜켜이 쌓여 어떤 곳은 습지가 되고, 또 다른 어떤 곳은 모래사장이 된다. 백두대간에서 떨어져 나온 돌덩어리가 강물 속에서 깎이고 깎여 모래가 됐고, 그 모래가 서울 한강변에 쌓였으니 이것이 아마로 '서울 한강 백두대간 모래사장' 아니겠는가. 그런데 당시 한강의 모습을 보면 강변 양쪽에 모두 모래가 쌓이지는 않았다. 북쪽에 모래사장이 있으면 남쪽은 습지가 있는 식이다. 예를 들어본다. 지금의 한강대교 북단인 용산구 이촌동에는 해운대 같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지만 남단인 노량진(鰲梁津)에는 모래사장이 발달하지 않았다. 노량진은 오히려 물살이 빨랐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노량진의 한자는 좁은 해역을 뜻하는 '기장량(梁)'이 사용된다. 이 한자는 명량(鳴梁), 견내량(見內梁), 칠전량(漆川梁) 등 좁고 물살이 빠른 곳을 지칭할 때 쓰인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서

울의 한강이 일직선이 아닌 더블유(W) 형태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굽이쳐 흐르는 구간은 원심력이 작용해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퇴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반대쪽은 구심력으로 인해 퇴적물들이 층층이 쌓인다. 물놀이에 대한 글에 지형과 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필자에게 편찬을 하려나?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당시의 한강 강수욕을 신기하게 보는 관점보다는 한강에서 어떻게 강수욕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이다. 짠맛이 나는 바닷모래가 아닌 금빛의 강모래에서 모래찜질을 하면 어떨까 상상하며..

### 강수욕을 기억하는 사람들

서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고도 불리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확장된다. 1960년대에는 인구가 350만 명에 이른다. 드넓게 펼쳐진 한강의 모래사장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수강생 A는 이렇게 회고했다. "아마 그때 전차를 타고 갔었을 거예요. 어디에서 왔는지 백사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도 있었고, 또래로 보이는 무리도 몇몇 보였어요. 거기서 아이스케끼(아이스크림)도 팔고, 냉차도 팔고 그랬죠. 찬 거 먹고 배탈 나서 아주 혼란적도 있었어요(웃음)" 수강생 A는 지금의 이촌동, 즉 용산 노들 강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했다고 한다. 노들 강수욕장은 세계 최대의 강수욕장이었다는 일설도 돈다. 역시나 나이가 지긋한 또 다른 수강생 B는 독섬유원지 이야기를 했다. "독섬유원지까지 궤도차를 타고 갔어요. 독섬유원지가 다른 곳보다 좋았던 게 바로 수영장 때문이지요. 지금도 독섬에 가면 수영



장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 옛날에도 뚝섬엔 수영장이 있었어요. 백사장도 있고말고요. 아주머니들이 빨래도 했죠. 아침! 나루터도 있었어요.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라 다리가 없었어요. 동력선을 타면 봉은사까지도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궤도차는 전차의 일종이다. 당시 동대문에서 뚝섬을 거쳐 광나루까지 운행했었다. 전차 역에 나루터까지 있었으니 뚝섬은 교통의 요지였던 셈이다. 비록 서울의 전차는 1968년을 끝으로 운행을 종료했지만 전차 덕분에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붐빌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뚝섬이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나무 그늘이다. 다른 강수욕장들은 숲이 거의 없었지만 뚝섬 일대는 나무숲이 있어 천연의 파라솔 역할을 했다. 그런 자취가 남아서인지 뚝섬에는 현재 서울숲이 자리 잡고 있다.

### 생명력이 길지 않았던 강수욕장

많은 서울 시민이 찾았던 한강의 강수욕장이지만 생명력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1950~1960년대 반짝 가장했을 뿐이다. 앞으로 시기를 당겨보아도 기껏 일제강점기까지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아무래도 조선시대에는 강수욕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한복은 수영을 하는 데 적합한 복장이 아니다. 앞쪽 시기는 늘어날 수 있지만 뒤쪽 시기는 고정됐다. 1970년대부터는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모래사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모래는 염분이 많은 바닷모래보다 질이 좋아 훌륭한 건설 자재로 사용됐다.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강 일대는 큰 공사장처럼 변했다. 강수욕장이 있던 모래사장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시멘트로 채워진 인공제방들이 들어섰다. ‘한강 강수욕장’이라는 말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뚝섬에서 배 타고 조금만 들어가면 백사장이 아주 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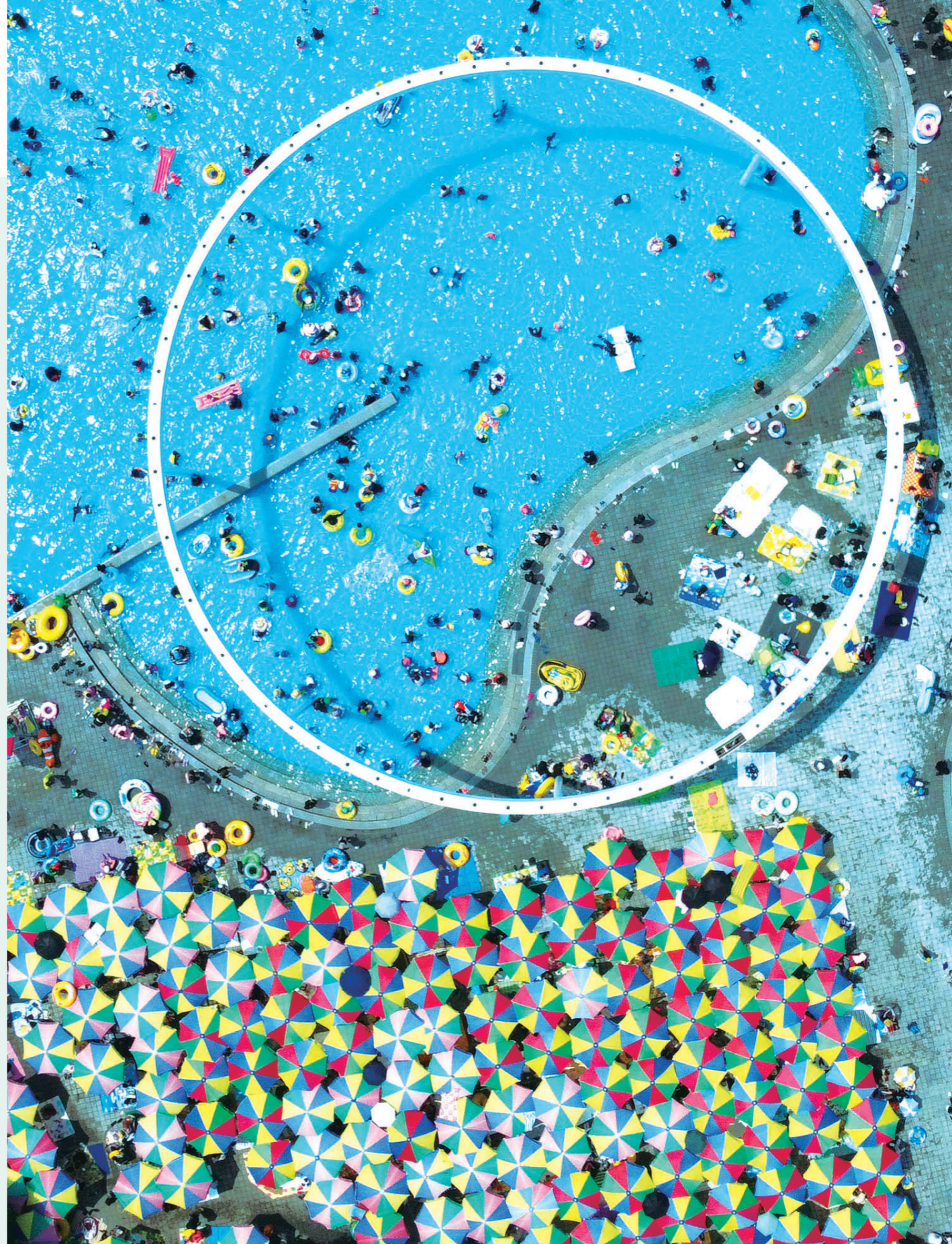
한강은 과거에 강수욕장으로서 많은 시민에게 물놀이의 즐거움을 안겨줬는데 오늘날에는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



었던 저자도라는 섬이 나왔어요. 거기서도 물놀이를 재미있게 했어요. 튜브랑 파라솔을 빌려주는 행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강 개발을 한다고 모래를 퍼 올리더라고요. 섬도 없어지고, 백사장도 없어졌죠. 그때 이후로 한강에서 수영을 못했어요. 물이 온통 흙탕물이 돼서 입수할 생각도 안 했죠.” 수강생 B가 옛날을 떠올리며 아쉬워했다. 한강종합개발은 1986년에 종료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의 모습이 그때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 페달을 굴리고, 노를 젓고

수강생 A와 B가 기억하는 한강의 강수욕은 이제 없지만 한강이 피서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강수욕이 사라지긴 했지만 물놀이용 보트는 한강 수면 위를 뚝뚝 떠 있었다. 노를 젓는 일반적인 보트도 있고, 위로 가림막을 쳐서 햇빛과 비를 막는 보트도 있었다. 이후 보트들은 유람용 오리 배로 바뀌게 된다. 1990년대 초반 오리 배를 탔던 수강생 C는 이렇게 회고했다.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에는 4m 높이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는 아쿠아링과 흐르는 물에 튜브를 타고 도는 유수풀이 있다





2009년에 개설한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은 매년 여름이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한강에서 오리 배 페달 좀 굴렸죠. 주로 여의도에서 많이 탔는데 사실 오리 배 타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어떻게 연애 좀 해볼까 그게 다..(웃음)”  
 성공했을까? 수강생 C는 그저 멧쩍게 웃을 뿐이었다. 오리 배들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2010년도 이후부터는 카약, 패들보드(sup)와 같은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노를 저었다. 카약, 패들보드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한강이 된 것이다. 이전에 보트나 오리 배는 유람의 목적이 강했다면 카약이나 패들보드는 레저에 운동까지 겸비한 스포츠다.

**지금, 한강의 수영장**

‘한강의 물놀이’가 주제인 글이라면 이 시대의 야외 수영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서울 한강 변에는 망원, 여의도,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에 6개 수영장과 난지, 양화 2곳에 물놀이장이 있다. 수영장은 말 그대로 수영이 가능한 곳으로 물놀이장보다 깊이가 더 깊다. 반면 물놀이장은 얇은 수심이어서 어린

아이도 침범침범 가볍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수강생 A, B가 봤을 때 8개의 야외 수영장은 자연으로 만들어졌던 그때 그 시절 강수욕장보다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장점이 분명 있다.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해염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답답한 실내 수영장은 범접할 수 없는 ‘한강 뷰(View)’를 배경 삼아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매력이지 않은가? 그렇게 시원함을 선사한 수영장 중 일부가 노후화돼 간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현대적 기술과 감각을 적용해 새로운 개념의 물놀이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2007년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지금의 한강이 완성됐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당시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성 회복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세부 프로젝트에는 물놀이장과 수영장 조성도 빠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노후한 잠실 한강공원 수영장을 자연친화적인 놀이 공간으로 조성해 사계절 열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위\_조성 전, 아래\_개괄 후 조감도)

앞서 소개했듯 한강에는 6개의 수영장과 2개의 물놀이장이 있다. 깔끔한 시설로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을 남긴 노후 수영장도 있다. 노후 수영장은 현대적 기술과 감각의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거듭 날 예정이다. 자연형 물놀이장이란 숲속 놀이터, 생태 물놀이장 등의 이용 시설을 여름 한 계절이 아닌 사계절 활용하면서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자연친화적 놀이 공간을 말한다. 가장 먼저 1990년에 조성돼 30년이 넘는 잠실 한강공원 수영장이 자연형 물놀이장의 첫 조성지가 되겠다. 올해 11월 준공을 앞둔 잠실 자연형 물

놀이장은 2024년에 개장 예정이며 이후 광나루, 잠원, 망원 수영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자연형 물놀이장은 기존 수영장의 콘크리트 등 정형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자연 소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자연형 물놀이장 외에 이촌 한강 공원에 부유식 수영장 조성 계획도 밝혔다. 공원 내 노후한 거북선나루터를 대체 건조해 시설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 이름이 바로 ‘한강 아트리퍼’로 부유식 수영장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 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마리나 시설을 조성한다. 덴마크의 유명 관광지인 코펜하겐(브뤼게), 독일의 베를린(슈프레강), 프랑스의 파리(센강)에도 부유식 수영장을 설치해 많은 시민이 수영을 즐기고 있다.

지금까지 ‘한강의 물놀이’를 주제로 이야기 나왔다. 일부는 수강생들의 입을 빌려 전개하기도 했는데 딱딱한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생생한 이야기가 더욱 와닿지 않았나?

이제 여름이다. 한강의 야외 수영장이 6월 23일 금요일에 개장해 8월 20일 일요일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된다. 내친김에 수영복 입고 한강에 풍덩 해볼까? 참! 앞서 전했듯 잠실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변신 중에 있어서 올해는 휴장하고 2024년 6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 곳 더! 망원수영장도 성산대교 복단 성능 개선 공사를 포함해 여러 공사 시행 예정으로 올해는 휴장하며 2028년 이후 개장 예정이다. 잠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망원 한강공원 수영장을 제외한 6개 공원의 수영장 물놀이장을 찾아 도심 속에서 피서를 즐기러 떠나자. ☺

글을 쓴 **곽동운**은 역사 트레킹 마스터라는 거창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현재 백화점 문화센터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역사트레킹 서울학개론>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언젠가 트레킹을 좋아하는 이들과 ‘역사 트레킹 공동체’를 꾸리는 꿈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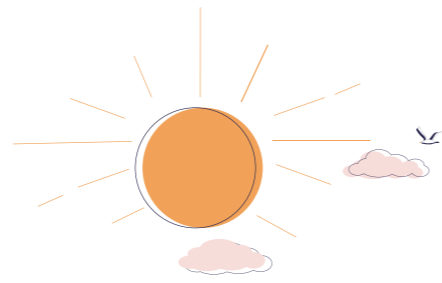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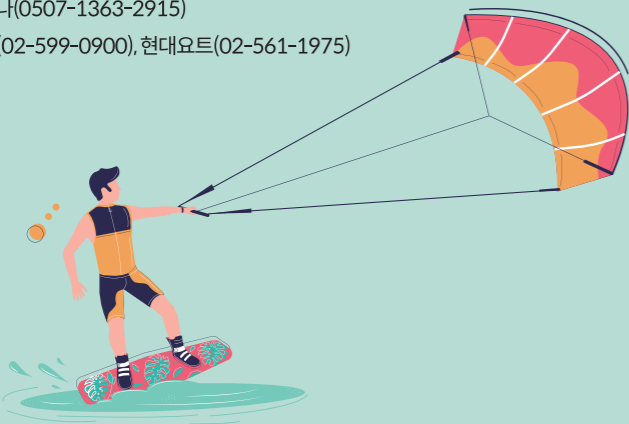
# 한강을 수놓은 수상레저 스포츠

사계절 내내 서울 시민 곁을 지키는 한강은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선물한다. 여름의 한강은 어떨까? 한강공원 잔디도 피크닉 온 시민들로 북적거리지만 고개를 돌려 한강을 바라보면 수면 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이 보인다. 어느 때보다 길고 뜨거운 여름날, 한강에서 스포츠와 함께하자.



정보제공: 한강사업본부

- 1 난지 수상스키중앙연합회(02-372-5221), 드림오브컴퍼니(02-854-8000)
- 2 양화 한강레저스포츠(010-9363-5009)
- 3 여의도 파라다이스(02-3780-0740), 한강레저스포츠(010-9363-5009)
- 4 이촌 세븐수상레저 (010-9764-7574)
- 5 잠원 대한웨이크서핑협회(02-541-8255), 리버시티수상스키장(02-3442-3313), 돌핀서프라이버시티(0507-1348-9001)
- 6 독섬 서프스토리(010-4454-6251), 포시즌수상레저(010-5793-4479), 자유17(010-3913-2915), 스피드클럽(02-456-6913), 서프오션(0507-1349-0730), 서프존(0507-1309-6251), 하이윈드 카이트보딩 클럽(0507-1343-6761)
- 7 잠실 루나루대진마리나(0507-1363-2915)
- 8 반포 골든블루마리나(02-599-0900), 현대요트(02-561-1975)



## 윈드서핑 Windsurfing

보드 위에 돛을 달고 바람 세기에 맞춰 균형을 잡으며 물살을 가로지르는 종목으로 돛을 미는 바람의 압력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방향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기술로는 물 위에서 팔로 물을 저어 나가는 패들링(Paddling) 기술, 세일을 들어 올리는 세일 업(Sail Up) 기술 등이 있다.

### ▶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

스피드클럽(독섬), 서프오션(독섬), 서프존 45(독섬), 돌핀서프라이버시티(잠원)

“수상레저 기구가 없는 시민도 수상레저를 경험한 적 없는 시민도 한강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 관련 협회·단체나 업체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



## 카이트 서핑 Kitesurfing

카이트 보딩(Kite Boarding)이라고도 불리는 카이트 서핑은 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을 합친 스포츠로 산의 절벽 등에서 뛰어내려 활공하는 스포츠인 패러글라이딩에서 사용하는 대형 연을 서핑 보드에 연결해 공중에 띄워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 파도를 가르며 즐기는 스포츠이다.

### ▶ 카이트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

하이윈드 카이트보딩 클럽(독섬)  
\*서울에서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 뿐이지만 전문 장비와 자격증만 갖춰져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카이트 서핑을 즐길 수 있다.

## 패들보드 Paddleboard

SUP(Stand Up Paddleboard)라고도 불리는 패들보드는 파도가 있는 곳에서는 서핑처럼 파도를 타고 움직이고, 파도나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카약처럼 노를 저어 움직이는 종목으로 강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즐길 수 있다.

### ▶ 패들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곳

루나루대진마리나(잠실), 돌핀서프라이버시티(잠원), 서프스토리(독섬), 포시즌수상레저(독섬), 자유17(독섬)



## 카약 Kayak

동근 선체에 길고 좁은 폐쇄형 보트에 앉아 양날 노를 저어 나아가는 종목으로 카누 경기의 일종이다. 뒷 뒷개가 있고 양날 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카누와 다르며 여름에 바다에서 사냥할 때 이용됐다고 전해진다.

### ▶ 카약을 즐길 수 있는 곳

골든블루마리나(반포), 현대요트(반포), 한강레저스포츠(양화), 서프스토리(독섬), 포시즌수상레저(독섬), 자유17(독섬)



## 웨이크보딩 Wakeboarding

수상스키와 스노보드, 서핑을 접목했으며 모터보트에 줄을 연결해 보드로 배가 만들어내는 인공 파도를 타며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수상 종목이다. 기술로는 180° 돌리는 스위치(Switch) 기술, 물결을 타는 슬랄럼(Slalom) 기술, 물결을 뛰어넘는 원 웨이크 점프(One Wake Jump) 기술 등이 있다.

### ▶ 웨이크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곳

대한웨이크서핑협회(잠원), 리버시티수상스키장(잠원), 세븐수상레저(이촌), 파라다이스(여의도), 한강레저스포츠(여의도, 양화), 수상스키중앙연합회(난지)

## 수상스키 Water-skiing

양발에 스키를 신고 모터보트에 끌려 물 위를 활주하는 종목으로 초보자를 위한 저속도 스키(Low Speed Ski), 다목적용 스키로 대회 전에 주로 사용하는 슬랄럼 싱글 스키(Slalom Single Ski), 어린이를 위한 짧은 스키(Short Ski), 방향을 바꿔가며 묘기를 부리는 회전용 스키(Turnaround Ski) 등이 있다.

### ▶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

대한웨이크서핑협회(잠원), 리버시티수상스키장(잠원), 강남수상레저(잠원), 세븐수상레저(이촌), 파라다이스(여의도), 한강레저스포츠(여의도, 양화), 수상스키중앙연합회(난지), 드림오브컴퍼니(난지)



“개인 수상레저 기구가 있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상류를 제외한 한강 어느 곳에 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단,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 필수 착용! 5마력 이상의 동력 기구를 이용할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소지자가 운전해야 하는 준수 사항도 잊지 마세요!”





2006년 제21회 도하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73kg급 결승에서 이원희 선수가 유도 중추국인 일본 상대 선수를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다

## 15년 만에 현역 복귀, 새로운 한판승을 향해

용인대학교 유도경기지도학과 이원희 교수

이름 앞에 붙은 '한판승의 사나이'라는 수식어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땀 흘린 날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온 국민에게 금메달의 기쁨을 안겨줬던 이원희 선수. 20여 년이 흐른 지금, 서울에서 유도를 처음 시작했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현역 전성기까지의 나날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땀을 흘린다.

젊은 청년이 유도 경기에서 '챔피언', '랭킹이 더 높은 선수'를 의미하는 흰색 도복을 입고, 주먹을 꽉 쥐 채 오른팔을 번쩍 들어 올린다. 건장한 체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서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다. "한 번 더 해냈다!" 무너진 상대 선수를 뒤로 하고 번쩍 들어 올린 오른팔에서 자신감이 차오른다.

이때를 기억하시나요? 국가대표로서 마지막 경기였던 2006 도하 아시안게임 결승전 때예요. 많은 대회에 출전했지만 이 대회가 유난히 기억에 남아요. '유도 천재'로 불렸던 일본 다카마쓰 마사히로 선수와 붙었는데 당시에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목숨 걸고 출전한 대회였어요. 인대도 끊어지고, 뼈도 부서지는 등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가득했던 대회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셨어요. 인간은 본인이 세운 목표를 이뤄야겠다고 다짐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본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본인이지 않아요. 저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금메달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어요.

금메달만을 주시했던 이원희 선수는 2006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유도 사상 최초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아시아 선수권 우승)했다. 1년에 48연승, 44 한판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한판승의 사나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서울홍릉초등학교 재학 시절에 유도를 처음 시작하셨죠? 4학년 때요. 동네 골목대장인 저를 아버지께서 격정하셨나 봐요. 예의 바른 후배들이 전부 유도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유도장으로 데리고 간 게 시작이에요(웃음). 처음 간 날, 체격이 왜소한 형한테 대결 신청을 했어요.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힘으로 안 되더라고



요. 기술이 필요한 종목이란 것을 깨달았고, 오기가 생겼죠. 어떻게든 형을 넘겨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 유도에 완전히 빠졌어요.

이후에 유도 명문 학교로 유명한 서울 보성중·보성고등학교에 진학하셨어요. 유도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3등을 하고 가능성을 보이면서 보성중 학교에 진학했어요. 현재 유도 코치인 정부경 전 선수, 2002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최용신 전 선수 등 실력 좋은 분들이 학교 선배예요. 멋있게 잘 해내는 선배들처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어요. 이 표현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웃음). 본격적으로 유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그때의 목표도 올림픽 금메달이었어요.

유도복만 입으면 어떤 상대든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던 어린 이원희는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팀에서 금메달을 땀다. 하지만 그 후 부상으로 왕기춘 전 선수에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발전에서 패배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요즘 바쁘신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용인대학교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로서 후배 양성을 위



“ 제 목표는 항상 ‘1등’, ‘금메달’이었어요. 훈련 루틴을 짤 때 구조화를 하는 편인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중입니다 ”



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나니 권성세 감독님이 대단하시다는 걸 새삼 또 느껴요. 그리고 지도자로서도 충실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제자들의 경쟁자로도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웃음).

**국가대표 복귀를 선언하셨죠. 결심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코로나 19 때고요. 모두가 처음 겪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다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또래인 40~50대 중년들의 힘듦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에까지 닿게 된 거예요. ‘15년 전 은퇴를 선언한 유도 선수가 마흔 살을 넘기고 현역에 복귀한다니!’ 이 자체로 응원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 다들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이라는 연락도 많이 받고요(웃음).

**복귀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 저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훈련할 때 유도 띠를 딱 잡으면 매서운 눈빛으로 달려들어요(웃음). 더 좋아요. 시너지를 내면서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자랑 훈련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도 해요. 제가 자극제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자극이 계속해서 주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망각되기 쉽죠. 한편으로는 제 복귀 소식을 듣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도전한 게 백번 잘했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많은 분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됐고요.

**현역으로의 복귀 소식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었지만 이원희 교수는 대회에 출전해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자극제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본인의 성장에도 진심이지만 후배를 위한 마음에도 진심이 느껴진다.**

**현역 때랑 지금과 비교하면 분명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 아주 달라요(웃음). 운동을 오래 쉬고 다시 시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움직임이나 순발력, 상대 기술을 파악하는 감각 등 옛날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운동을 아예 못 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체중 조절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면서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금 제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려고 전술을 많이 짜고 있어요. 또 규칙이나 트렌드도 현역 시절과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규칙을 바탕으로 어떤 기술을 활용해야 이길 수 있을지에 관한 전술을 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온 유도 선수 이원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아니, ‘금메달’입니다. 제 목표는 보성중학교 때부터 어느 대회든 항상 ‘1등’, ‘금메달’이었어요. 저는 훈련 루틴을 짤 때 구조화를 하는 편인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중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체육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70년 세월 안에는 매우 많은 선수와 지도자들의 노고가 젖어 들었을 거라 감히 생각해요. 지금까지 서울체육 발전을 위해 달려온 서울특별시체육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 선수로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도 새로운 70주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여름, 이원희 선수는 몽골에서 열리는 그랜드슬램 대회에 출전한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국가대표 복귀를 선언하고 출전하는 첫 대회를 두고 ‘무조건 1등’이라는 마음이 불쑥 솟아올랐다는 이원희 선수. 몇십 년이 지났어도 식을 줄 모르는 그 열정에 한껏 힘을 실은 금빛 박수를 보낸다. ❁



FRANCOIS&FREDERIQUE'S



SEOUL

# 프랑스에서 온 프랑수아&프레드릭이 들려주는 서울의 달리기와 자전거

프랑수아와 프레드릭은 프랑스에서 온 부부다. 남편인 프랑수아가 작년에 한국 회사로 파견 발령을 받고 온 가족이 서울로 왔다. 이들이 사는 곳과 생활환경은 바뀌었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프랑스에서도 취미로 가졌던 자전거 타기와 달리기다. 부부의 운동은 서울에서도 계속된다.



“안녕하세요! 프랑수아(남편)와 프레드릭(아내)입니다. 우리 부부는 2022년 8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인 저는 프랑스의 한 기업에서 일하는데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파견을 왔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왔죠. 우리 부부는 프랑스를 떠났지만 운동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Hi! We are Francois(Husband) and Frederique(Wife). We have been living in Korea since August 2022 as a married couple. I, as the husband, work for a French company that has established a partnership with a Korean company. When I was sent to Korea on assignment, my wife and children, who also enjoy new experiences, came along with me. Although we left France, we continue to exercise regularly.”

FRANCOIS&FREDERIQUE'S



SEOUL



## 서울에서 운동을 즐겨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반포동 서래에 사는 우리는 반포한강공원에서 운동을 많이 해요. 보통 월드컵공원 방향인 서쪽을 선호해요. 더 평평하고 덜 붐비기 때문이죠. 한강을 따라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정말 좋아요. 서울의 한강은 가벼운 산책은 물론 운동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집과 가까운 곳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 얼마나 자주 운동하시나요?

우리는 주로 주당 10km에서 20km를 달립니다. 우리는 달리기만 하지 않아요. 자전거 훈련도 주에 3번 하고 있어요. 모든 훈련을 합치면 주당 약 68시간이 되더라고요. 일주일 중 대부분의 날을 운동으로 보내요. 참! 등산을 빠뜨렸네요. 우리 부부는 서울의 산을 오르는 것도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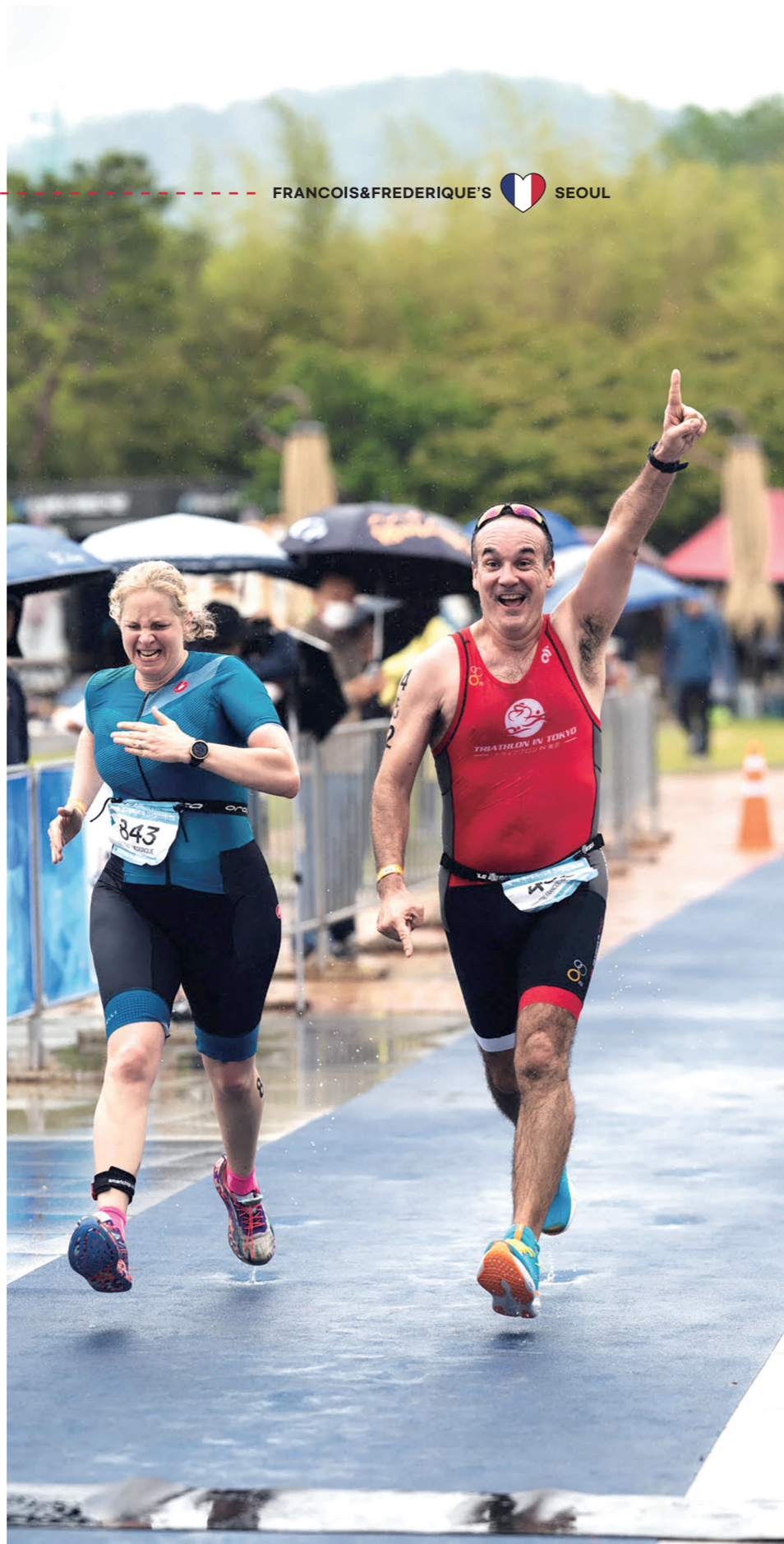
## Where do you enjoy exercising in Seoul?

Living in Seorae, Banpo-dong, we exercise a lot at Banpo Hangang River Park. We run and cycle along the river around Banpo. It's really good. We usually prefer the west, which is the direction of the World Cup Park. Because it's flatter and less crowded. Hangang in Seoul is great place to take a light walk and exercise. But most of all, it's close to my house, so I end up going more.

## How often do you exercise?

We usually run 10 to 20 kilometers per week. We don't just run. We also train bicycles three times a week. All the training combined is about 68 hours a week. We spend most of the week exercising. Oh! I missed hiking. My wife and I also like to climb mountains in Seoul.





**평소 두 분이 운동을 함께하시나요?**

한 명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항상 대회에 같이 등록하고, 경쟁해요. 멋진 추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주말을 모두 할애해야 하는데 꼭 같이 휴가를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경기는 개인 종목이지만 같은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서울에서 좋아하는 장소와 한국 문화가 있나요?**

음악 콘서트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오페라 공연 관람을 위해서는 예술의전당에 가요. 최근에는 힙합가수 팔로알토 공연을 보러 서교동에 있는 공연장인 스페이스 브릭에 가기도 했어요. 아내 프레드릭은 한국의 목욕 문화를 좋아해요.

**Do your couple tend to exercise together?**

We always register and compete together unless one of us is injured. We love doing it together. It becomes wonderful memories. To go to a race always takes the whole weekend, so it's a bit like going on vacation together. Even if race is an individual sport, we actually spend more time together having the same hobby.

**What are your favorite places and aspects of Korean culture in Seoul?**

I love going to music concerts. I go to the Seoul Arts Center to watch opera. Recently, I also went to Space Brick in Seogyo-dong to watch a hip-hop artist, Paloalto's performance. My wife finds the bathing culture in Korea fascinating.

**세계를 달리는 부부**

프랑스 국적인 프랑수아와 프레드릭 부부는 2022년 8월에 두 자녀와 함께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프랑수아가 근무하는 직장은 해외 기업과 협업 관계를 맺는 사업이 잦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의 아시아 생활은 한국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5년, 2017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5년을 보냈다. 2022년에 첫발을 내디딘 서울에서도 4년 정도 머무를 계획이다. 이들에게 운동은 특별한 활동이 아닌 일상생활이나 마찬가지이다. 잠시 정착한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자전거 대회에 꼭 참가했다. 이들이 달리기 시작한 것은 폴란드에서 살았던 2010년이다. 주변에 달리기 취미인 친구가 많아 자연스럽게 달리기 모임에 합류하게 된 것이 시작이다. 처음에는 가볍게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2019년에 일본 도쿄에서 우연한 계기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한다. 두 부부의 생애 첫 하프 마라톤 완주였다.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의 기쁨을 맛본 프랑수아와 프레드릭 부부는 자전거 타는 것도 멈추지 않고 병행했다. 프랑수아와 프레드릭 부부는 무엇이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운동도 그렇다. 폴란드에서 살던 당시, 프랑수아가 주변 친구들로 인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면, 프레드릭은 남편인 프랑수아를 따라 운동의 세계에 접어들었다. 같은 취미를 갖고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며 부부가 취미를 공유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말을 전한다. 둘 중 누구 한 명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관심 있는 대회가 있다면 늘 함께 출전한다고 한다. 프레드릭은 함께 운동하고 대회에 출전하는 날들이 먼 훗날 멋진 추억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운동에 할애하는 모든 날**

프랑수아와 프레드릭 부부의 일과는 운동하는 때와 운동하지 않는 때로 나눌 정도다. 특히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시간을 운동으로 보낸다고 한다. 주당 대략 68시간 훈련하며



자전거 경주 대회에 참가한 프레드릭

훈련에는 자전거 타기와 달리기, 수영이 포함된다. 집과 가까운 곳에 반포한강공원이 있어서 운동하기 좋다. 프랑수아와 프레드릭은 주당 1020km를 달릴 뿐 아니라 주당 3회 자전거 훈련도 놓치지 않는다. 일요일에는 집 근처에 있는 레포츠센터에서 전문가로부터 2시간가량 훈련을 받으며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도 겸한다. 자전거 타기와 달리기만큼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등산도 한다고 한다. 달리기와 자전거에 이어 수영과 등산까지. 운동하는 때와 운동하지 않는 때로 일과를 나눌 수 있을 정도라고 했던 부부의 말에 이 정도면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들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응원도 분명 작용하지만 더 큰 동기부여가 있다고 한다. 바로 '대회'이다. 보통 SNS 광고나 지역 내 레포츠센터를 통해 각종 대회 개최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한다. 일 년 남짓한 한국 생활 동안 제주도와 대구, 고성 등 지역을 불문하지 않고 다닐 정도로 일정만 허락한다면 최대한 많은 대회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 부부에게 대회가 곧 동기부여인 셈이다. 완주 기록 등 결과를 떠나 땀 흘린 후에만 만끽할 수 있는 기분을 알기에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프랑수아와 프레드릭 부부. 이들은 오늘도, 내일도 땀 흘리며 한강을 달릴 것이다. 🌟



'School Of Sports, SOS!'는 현직 체육선생님들의 실제 학교 수업에 참여해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코너입니다.

# 같이의 즐거움, 넷볼을 시작으로!

서울대동초등학교 이소영 교사

여학생들이 운동장을 활보하는 장면을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이 시작이었다. 서울대동초등학교 이소영 교사는 이 마음을 담아 여학생들을 모집해 넷볼스포츠클럽을 결성했다. 그의 바람대로 스포츠클럽 팀원들에게 운동장은 바라만 보는 곳이 아닌 친구들과 같이 땀을 흘리며 누비는 곳이 됐다.



몸풀기를 마친 후에는 가장 먼저 볼(ball)을 주고받는 훈련에 들어간다

###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하루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때문일까? 책가방을 풀어헤치고 운동장을 전력으로 질주하는 학생들 때문일까? 정오의 풍경이 눈앞에 가득해 시간을 확인하지만, 아직 8시다. 이른 오전부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 12명을 따라갔다. 학생들의 시선 끝에는 이소영 교사가, 그 옆에는 농구 경기에서 쓰일 법한 골대와 공이 있다. 이소영 교사와 12명의 학생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식 등교 시간 한참 전인 오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운동장 한쪽을 차지한다.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은 바로 서울대동초등학교 넷볼스포츠클럽팀이다. 서울대동초등학교 넷볼스포츠클럽은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고자 2022년, 이소영 교사가 결성했다. 팀원이 모두 모이자 이소영 교사를 중심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졌다. 안전을 위한 준비 운동은 필수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소영 교사의 구령 뒤에 “다섯 여섯 일곱여덟, 둘 둘 셋 넷”을 제창하는 모습이 능숙하기만 하다.

넷볼에서 중요한 기술을 꼽으라면 패스(Pass)가 그중 하나겠다. 그러다 보니 훈련마다 준비운동 후에는 둘씩 짝을 이뤄 패스 연습을 한다. 두 골대 사이에 줄을 이뤄 자리를 잡는 팀원들. 이소영 교사가 “시작!”을 외치자 저마다의 볼(Ball)이 공중을 교차

“보름달같이 큰 원을 만들어 선다. 볼을 받으면 건너편 팀원에게 패스 후 옆자리로 이동한다. 한동안 장거리 패스 훈련을 이어 나간다. 그렇게 이들의 하루가 8시 10분, 운동장에서 시작된다”

하며 넘나든다. 하지만 아직 몸이 덜 풀린 탓인지 미처 잡지 못하고 저 멀리 굴러가거나 짝이 아닌 팀원에게 닿는다. 이를 지켜보던 이소영 교사가 팀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지도한다. “위에서 아래로 던지세요!”, “오는 공은 끝까지 쳐다보기!” 몇 번의 지도가 더해지자 볼들이 곡선을 그리며 짝에게 도착한다. 지금까지 2인조 단거리 패스 연습을 했다면 이제 장거리 패스 연습 시간이다. 둘씩 짝을 이뤄 만들었던 대열을 헤치고 보름달같이 큰 원을 만들어 선다. 볼을 받으면 건너편 팀원에게 패스 후 옆자리로 이동한다. 한동안 장거리 패스 훈련을 이어 나간다. 그렇게 이들의 하루가 8시 10분, 운동장에서 시작된다.





몇 차례 경기 후 작전 타임이 주어지자 학생들이 전술을 짜기 시작한다

“  
 쿼터가 진행될수록 팀원 간의 합은 더욱  
 맞춰졌고, 그 중심엔 ‘혼자’가 아닌 ‘함께’가  
 자리했다. 이소영 교사가 이날 수업 목표로  
 삼았던 ‘소통’이 이뤄진 것이 아닐까  
 ”

이날은 부상자가 있어 포지션 구분 없이 5대5 미니게임이 치러졌지만 학생들의 움직임은 7대7 경기만큼이나 골대와 골대 사이를 짝 채웠다. 넷볼 경기 규칙상 두 팀의 팀원 전원이 슛을 넣거나 막기 위해 같은 골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볼을 쏜 팀원을 따라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에서 알게 모르게 발휘되는 협동심이 돋보였다. 슛과 방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움직일수록 열정과 집중의 정도가 비례해서 올라갔다. 각 팀원의 이름을 외치며 코치하는 이소영 교사의 목소리에서도 열정이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넷볼은 7분씩 4쿼터로 진행되는데, 이날 미니게임은 7분씩 전 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 총 두 타임의 경기가 치러졌다. 전반전이 막 끝났을 때다. 이소영 교사가 작전 타임을 외쳤다. 팀별로 작전 타임을 갖기 전 두 팀 모두에게 전하는 이소영 교사의 코칭이 있었다. 작전판을 이용해 농구와 달리 자신의 역할이 명확한 포지션이 있음을 다시금 일러준다. 이제는 팀별로 작전을 세워야 할 때다. 하하호호 장난스럽게 웃다가도 서로의 작전이 새어나가지 않게 멀찍이 떨어져 진지하게 전략을 모의하는 팀원들이다. 이날 파랑팀이 세운 작전명을 조심스럽게 공개하자면 ‘이름 부르기’다. 파랑팀이 2쿼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호가 맞지 않아 볼을 놓치고, 상대방에게 뺏긴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리하여 볼을 패스할 때 받을 팀원의 이름을 외치는 작전이다. 파랑팀의 작전을 들은 이소영 교사는 “경기를 뛰면서 말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다. 후반전이 시작됐다. 몸과 입은 앞선 전반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풀렸다. 쿼터가 진행될수록 팀원 간의 합은 더욱 맞춰졌고, 그 중심엔 ‘혼자’가 아닌 ‘함께’가 자리했다. 이소영 교사가 이날 수업 목표로 삼았던 ‘소통’이 이뤄진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이 이소영 교사는 팀원들을 지도하면서 넷볼이라는 팀 스포츠를

**함께 넷볼하는 소녀들**

넷볼은 각 7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골대 위에 설치된 링에 공을 넣어 승부를 가리는 경기다. 얼핏 보면 흔히 알고 있는 농구와 비슷하다. 농구를 여성에게 맞게 변형하긴 했지만 두 종목은 엄연히 다르다.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백보드(Backboard)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골대 위에 링과 백보드를 설치하는 농구와 달리 넷볼은 링을 단독으로 설치해 경기한다. 경기 규칙도 다르다. 농구는 선수마다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등 포지션이 있지만 한 선수가 전 코트를 누빌 수 있다. 하지만 넷볼은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만 경기할 수 있고, 공을 가진 선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공을 갖고 3초 이상 있거나 3보 이상 움직였을 때 혹은 드리블하면 반칙이다. 패스 훈련 후 파랑팀과 주황팀으로 나뉘었다. 7대7 경기가 원칙인 넷볼이지만 12명이 정원인 서울대동초등학교 넷볼스포츠클럽팀은 6대6으로 경기를 진행해 왔다.

통해 신체 활동의 즐거움은 물론 팀 스포츠의 매력을 느껴 초등학교 이후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 성인이 돼서도 운동을 즐기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협동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넷볼스포츠클럽**

많은 여학생에게 체육과 스포츠란 멀고 어려운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이소영 교사가 스포츠클럽 종목으로 넷볼을 선택한 데는 뜻깊은 이유가 있다. 넷볼은 경기장 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분명한 종목인 데다가 포지션마다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자신의 역할을 성취했을 때 얻게 되는 자신감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체육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취지가 크다. 더불어 드리블을 하면 반칙인 넷볼의 규칙상 한두 명의 뛰어난 학생을 주축으로 경기를 이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서울대동초등학교는 2022년에 열린 서울특별시교육감배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넷볼 종목에

서 예선 1등으로 본선에 진출했고, 본선에서는 3등을 차지했다. 일주일에 두 번, 40분간 훈련에 임했던 결과다. 대회에 출전해 본선에 진출했던 경험을 계기로 넷볼스포츠클럽 팀원들은 넷볼에 더욱 흥미를 붙였다. 6학년 1반 유경 학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넷볼스포츠클럽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년에 팀원을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어떤 종목인지도 모른 채 시작했는데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재미를 느꼈다고 한다. 유경 학생은 아직 넷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넷볼스포츠클럽 훈련 시간에 초대하고 싶다고 홍보대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훈련이나 경기 모습을 보면 다른 친구들도 분명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유경 학생에게서 넷볼을 향한 마음이 듬뿍 묻어나 있었다. 이른 아침에도 맑은 얼굴로 운동장에 모이는 학생들, 강한 햇빛에도 인상 찡그리는 얼굴 하나 없이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이소영 교사가 볼을 주고받으며 뛰어다니는 서울대동초등학교의 운동장은 오늘 아침도 왁자지껄하다. ☀

이소영 교사의 지도에 집중해야만 남은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變變(변변)스포츠는 '변화하는 스포츠, 진화하는 스포츠'라는 콘셉트로 스포츠 비하인드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 올림픽과 e스포츠의 거리감 있는 동행

e스포츠가 항상 꿈꾸던 '기성 스포츠화'에 IOC가 호응했다. 하지만 그들의 동행에 친밀감을 느끼기엔 부족함이 남았다. IOC가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앤드 워크라는 이름으로 e스포츠를 품었지만 기존 e스포츠 인기 게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선택을 한 IOC의 입장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면 올림픽과 e스포츠의 동행이 어떻게 이어질지 유추할 수 있겠다.

## e스포츠 품은 IOC

날씨가 화창하면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저마다의 장소에 모여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대형 경기장으로 향해 평소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관람하기도 한다. 정통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자의 종목에서 실력을 뽐내는 과정과 결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희열을 느낀다. 이제 게임으로 진행되는 e스포츠도 올림픽의 한 분야를 맡게 됐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돼 진행됐고, IOC에서 e스포츠를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앤드 워크(이하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라는 이름의 대회로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는 말 그대로 게임으로 진행되는 올림픽이다. 젊은 세대를 미래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IOC의 결심에서 비롯됐다. IOC는 '올림픽 어젠다 2022+5 프로젝트'로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를 출범했다.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는 예선 무대에 해당하며 올림픽 e스포츠 워크라는 이름으로 본선이 치러진다. 첫 대회가 진행됐던 2021년에는 총 25만 명의 지원자와 누적 12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 올해 진행하는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메인 이벤트에 출전하기 위한 종목별 예선 전인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일정은 진작 종료된 상태다.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가 e스포츠로 진행된다고 해서 기존 e스포츠 특화 게임들이 종목에 추가된 건 아니다. 추가된 종목 대부분이 실제 스포츠 종목과 일치하는 게임들이다. 모터스포츠와 사이클, 야구, 양궁, 요트, 체스, 테니스, 댄스, 사격, 태권도다. 모터스포츠와 야구, 양궁, 요트, 체스, 사격 등 대부분의 종목은 기존에 출시된 PC 혹은 콘솔 게임들로 진행되고 일부 종목은 움직임을 인식해 구현하는 버추얼 방식으로 이어진다.

## 외면당한 유명 e스포츠 게임

사실 요즘 e스포츠 업계에선 IOC의 종목 선택을 두고 말이 많다. 흔히 e스포츠라고 하면 다들 알고 있을 만한 게임은 단 하나도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많은 e스포츠 전문가는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IOC가 아직 과거에 갇혀 있다"는 표현으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팬들 역시 좋아하는 e스포츠 종목을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에서 볼 수 없다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대 의견도 있다.

e스포츠에 특화된 게임들은 보통 폭력과 단체 전투를 통해 승패를 가리며 일부 게임에서는 테러리스트 등 반사회적 단체가 등장해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과 맞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견은 2018년 IOC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밝혔던 내용에 근거한다. 당시 IOC 측은 "누군가를 해하는 '킬러 게임'은 올림픽의 가치와 반대된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다양한 격투 스포츠의 경우엔 싸움에서 기원했음에도 문명화를 거쳐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스포츠 업계는 항상 정통 스포츠와 동등한 위치를 갖길 희망했다. 많은 e스포츠 종목이 정통 스포츠의 여러 가지 체계와 운영 방식 등을 적용해 성장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IOC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e스포츠 특화 게임들의 특징 간 차이를 줄이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 스포츠의 가치는 IOC가 밝혔던 것처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복싱이나 유도, 태권도 같은 격투기가 스포츠에 포함된 가장 큰 이유는 '문명화를 거쳤다'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싸움이나 폭력에서 출발한 격투기들은 다양한 규칙과 점수 책정 방식을 추가하는 등 최대한 폭력성을 덜어내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e스포츠 종목 게임들도 그 안에서 양 팀의 점수를 책정하는, 자신만의 다양한 규칙과 방식을 채택해 e스포츠로 자리 매김했다. 하지만 그러한 게임들은 모두 상대의 게임 캐릭터를

'사망케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팀이 승리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상대 캐릭터를 사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IOC 측은 이러한 부분이 현대 스포츠 정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e스포츠는 e스포츠대로?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열렸다. 해외 유명 게임이자 e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포트나이트는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에 합류하기 위해 올림픽 사격 종목과 유사한 방식으로 승패를 겨룰 수 있는 새로운 맵을 생성했고,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자신들의 게임 장르와 스포츠 종목의 유사성을 파악해 실행에 옮겨 얻어낸 성과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다른 장르의 게임들이 따라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기존 e스포츠 팬들에게 비판 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e스포츠 팬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과 아예 다른 방식의 규칙이 적용된 경기를 봐야 한다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야구가 올림픽에서는 캐치볼로 진행된다면 기존 야구팬들이 좋아해 줄지는 미지수인 것과 같다. 이처럼 기존 e스포츠 대회와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사와 IOC 모두 현재 입장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게임사가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를 위해 포트나이트의 예처럼 무언가 새로운 걸 내놓기도 쉽지 않을 거다. 마찬가지로 IOC가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의 종목 다변화를 위해 오랜 세월 유지했던 현대 스포츠의 철학에 변화를 주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 그럼 e스포츠는 지금의 e스포츠를,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는 또 지금의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방식을 유지하는 그림이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e스포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게임과 대회들이 계속 인기를 누릴 것이고,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에서는 기성 스포츠 종목을 그대로 재현한 게임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각자 자신들의 영역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동행하지 않을까? ✿

글을 쓴 박범은 10년간 e스포츠 기자로 활동 중이다. 게임과 e스포츠를 좋아했던 청년이 e스포츠 기자가 됐으니 '성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취미를 업으로 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깨닫기도 했지만 e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열정만은 식지 않은 채 품고 있다. 기자 일을 하면서 각종 기고, 칼럼과 특강, 인터뷰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원하는 바를 이루진 못했다.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리그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시민리그(S-리그)에 참가하는 동호회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 당신(撞神)들의 당구 시간

당구 종목이 올해 서울시민리그 정식 종목으로 선정돼 서울 시민 곁에 한걸음 더 다가왔다. 지난해 2022년 시범 종목 우승팀이었던 우당탕 동호회가 올해도 화끈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거침없이 나아가는 당구를 자랑하는 우당탕! 우당탕탕 부딪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당구 동호회

## 우당탕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실** • 우당탕 동호회의 회장 아닌 회장을 맡은 이실입니다(웃음). 팀원 수는 오붓하게 3명입니다. 당구라는 종목 특성상 동호회 규모로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체육서울시민리그(이하 서울시민리그) 당구리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박민호** • 대한당구연맹 심판 소속인 박민호입니다. 당구 경기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서울시민리그 당구리그에 참가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가입니다.

**정수창** • 서울당구연맹 소속 정수창 선수입니다. 당구를 한 지는 40여 년 됐네요. 우당탕 동호회에는 올해부터 참여했어요. 서울시민리그 당구리그에는 팀당 전문 당구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데요. 우당탕 동호회에서 참여 요청도 있었고, 저 역시 리그 일정과 개인 일정이 맞아서 참가했습니다.

당구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정수창** • 중학교 시절 친구네 부모님께서 당구장을 운영하셨어요. 친구네 집에 놀라 갔다가 당구를 처음 알게 됐어요. 친구 아버님이 마세(큐대를 세워공을 찍어치는 것)를 하시는데 공이 앞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모습에 매료됐어요. 그때부터 당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실** • 제가 젊었던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당구장에 다녔어야 했어요(웃음). 그 당시는 당구보다는 친구가 더 좋아서 당구를 쳤지만요. 친구들끼리 가르쳐주면서 당구를 배웠어요. 서로 이기려고 지독하게 승부를 가릴 때였죠.

**박민호** • 저는 대학생 때 친구들과 동네 당구장에 다니면서 당구를 접했어요. 그러다 당구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다가 심판까지 하게 됐지요. 예전에는 중대(2.54mm x 1.27mm 사이즈의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다가 대대(2.844mm x 1.422mm의 당구대)를 접하면서 새롭게 재미를 붙이게 됐어요.



회장 이실

“ 친구들끼리 가르쳐주면서 당구를 배웠어요. 서로 이기려고 지독하게 승부를 가릴 때였죠 ”





**우당탕 동호회는 어떤 모임인가요?**

**이실** • 사실 2022년에 열렸던 서울시민리그 당구리그에 참가하려고 급하게 만든 동호회예요. 우당탕에 속한 동호회 회원은 대한당구연맹과 서울당구연맹에서 심판이나 운영진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미 안면이 있던 사이였는데 당구가 시범종목이라고 해서 “이참에 함께해보자!”라며 모였죠.

**박민호** • ‘앞만 보고 달리며 직진하는’ 팀이라고 할까요? 이것저것 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부딪히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서울시민리그도 이런 마음으로 참가했답니다.

**동호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실** • 저희는 평상시에 꾸준히 모이지는 않아요. 당구 경기가 있을 때 “오랜만이다”라고 인사할 정도로요. 경기가 있을 때 헤쳐 모임니다. 서울시민리그 참가를 위해 만든 팀이다 보니 아직 특별한 운영 방식은 없어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박민호** • 저희가 당구연맹 소속이기도 하고 심판으로도 활동하기 때문에 우당탕 동호회 규모를 지금보다 키운다면 당구계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더 늘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아직 우당탕 동호회에 바로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양한 당구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우리 우당탕 동호회와도 인연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당탕 동호회만의 자랑거리가 있나요?**

**이실** • 팀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마음 편히 즐기면서 게임해요. 강자의 여유라고 해주죠(웃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재미있게 해야 힘들지 않아요. 팀원의 수가 늘어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박민호** • 우당탕 동호회는 승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즐겁게, 정정당당하게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을 기반으로 해요.

**정수창** • 실력으로 본다면 심리적, 신체적 컨디션을 잘 조절해요. 서울시민리그에 출전할 정도면 모든 참가자의 당구 실력은 비슷할 거예요. 1~2점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는 마지막 1점 싸움에서 당락이 결정돼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좋은 컨디션으로 임하는 것이 우당탕 동호회만의 특징입니다.



선수 정수창

“재미있고 건전한 스포츠라는 인식이 생겨서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된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워요”

**당구가 올해 서울시민리그 첫 정식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늘(5월 21일)이 당구리그 개막일이기도 한데 소감이 어떤가요?**

**이실** • 올해는 세 명이 해당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경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편이 잘 쳐서 성적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롭고요. 내가 딴 점수가 좀 부족해도 ‘다른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고 팀원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박민호** • 저는 처음에 아주 긴장했어요. 당구 대회 자체도 오랜만에 참여했거든요. 하지만 긴장은 금세 풀렸어요. 당구가 매너 스포츠이다 보니 선수들의 매너도 좋고 리그 분위기도 점잖아요.

**정수창** • 감회가 새로워요. 사실 당구는 1980~1990년대만 해도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2000년대를 지나면서 당구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바뀌고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졌어요. 재미있고 건전한 스포츠라는 인식이 생겨서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민리그 당구 시범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셨죠?**

**이실** • 우승 상장과 트로피를 한 개씩만 주셨어요. 팀원이 3명이다 보니 서로 가져가겠다고 실랑이를 했어요(웃음). 처음에는 제가 트로피를 일주일 정도 갖고 있다가 다른 팀원을 주고, 다른 팀원은 상장을 갖고 있다가 트로피를 가져가곤 했죠.

**박민호** • 우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올해는 팀원 수대로 상장과 트로피를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웃음).

**올해도 서울시민리그에 출전하시는데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실** • 오늘(5월 21일) 오전에 열린 예선 두 게임을 모두 이겼어요. 한 게임이라도 졌다면 맥이 빠질 텐데 모두 이겨서 욕심이 생깁니다. 오늘 경기만 모두 이기는 것이 목표예요.

**박민호** • 서울시민리그는 생활체육으로서 시민들이 ‘즐기자’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우승이 목표입니다! 이왕 시간을 투자해서 리그에 참여한 거니 제대로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당구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해 주세요.**

**박민호** • 동네 당구장에 찾아가 보세요. 당구장 사장님들은 웬만큼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장님께 “당구가 처음인데 배우고 싶다”라고 부탁하시면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쳐주실 거예요. 종종 잘 치는 다른 손님과 연결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실** • 당구를 혼자서 공부해서 제대로 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역별로 문화센터에서 당구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당구연맹으로 우당탕 동호회를 문의하시면 저희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



동호인 박민호

“‘앞만 보고 달리며 직진하는’ 팀이라고 할까요? 이것저것 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부딪히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 스포츠 에이전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된 현실

스포츠 에이전트 시장은 블루오션인가, 레드오션인가. 스포츠 스타들을 대리하는 에이전트 시장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꿈꾸는 직종이다. 대중매체에서 비치는 에이전트 비즈니스는 화려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무척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Q&A 형식으로 쉬우면서도 현실적으로 에이전트의 현황과 현실을 전한다.



©FIFA

국제축구연맹(FIFA)은 공정하고 투명한 이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새로운 에이전트 규정을 시행했으며 10월 1일부터는 축구 공인 에이전트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에이전트!

**Q**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중개인 제도가 무엇인가요?

**A** 선수를 대신해 연봉 계약, 이적 협상 등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구단끼리 주고받는 이적료, 선수 연봉의 3~10%가 주요 수입이다. 요즘 에이전트는 매니저까지 겸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 에이전트를 시행하는 종목에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가 있다. 축구와 야구에서는 에이전트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농구와 배구 에이전트는 대체로 외국인 선수 영입에만 관여하는 정도다.

**Q** 축구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제축구연맹(FIFA)은 FIFA 에이전트 시험을 폐지하고 2015년부터 중개인 제도를 도입했다. 시험 없이 연간 600달러만 내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췄지만 문제점도 많이 생겼다. 중개인 제도는 2023년 9월에 폐지된다. 중개인 제도는 폐지되지만 FIFA 에이전트 시험이 다시 시행된다. 과거 에이전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등록만 하면 그대로 활동할 수 있다. 중개인 제도에서 에이전트가 된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동아일보DB

지난 4월 기준, 하위권에 머물던 롯데자이언츠가 유강남(왼쪽) 등 FA(Free Agent)를 대거 영입해 전력이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 축구 에이전트 시험제로 전환... 시험 통과해도 시장 진입 쉽지 않아

**Q** 시험은 언제인가요?

**A** 2023년 4월 19일에 한 번 치러졌다. 온라인으로 60분간 진행됐다. 사지선다형 객관식 20개 문항이다. 문제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제됐다. 132명이 응시해 56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이 약 42.4%다. 9월 20일에 또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 영역은 FIFA 에이전트 규정이다. 시험은 오픈 북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골라볼 수 있다. 문제는 수험생마다 다르다. 20문제 중 15개, 즉 75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다.

**Q** 축구 에이전트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는 이적료 5%, 연봉 5~10%를 수입으로 챙긴다. 이적료 10억 원으로 외국으로 가는 A 선수가 있다고 치자. 선수 연봉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에이전트는 A를 보낸 구단, A를 영입한 구단으로부터 이적료의 5% 안팎을, 선수로부터는 연봉의 5%를 각각 수수료로 받는다. 총수익은 1억5000만 원이다. 이적료 10억 원, 연봉 10억 원 선수를 잡는 게 쉽지 않다. 한국에서 에이전트는 매니저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선수가 가는 곳에 거의 따라가야 하고 선수가 원하는 요청은 대부분 행해야만 한다. 국내에서는 연봉 1억 원 이상 선수를 최소 5명을 보유해 3~5년 동안 유지해야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야구 에이전트 시장... 대형 에이전트가 고연봉 선수 사실상 선점

**Q** 국내 프로야구에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18년부터 KBO리그 공인 선수 대리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시험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주관한다. 시험 신청료 11만 원, 수험료 44만 원 등 총 55만 원이 소요된다. 시험은 어렵지 않은 편이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선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Q** 신규 에이전트로 시장에 진입하기 쉽나요?

**A**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어렵다. 기존 에이전트들이 고액 연봉 선수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도 연봉 인상, 해외 진출, 타 구단 이적 등에 도움을 줄 대형 에이전트와 손을 잡으려는 경향이 짙다. 선수들은 선수 출신 에이전트, 평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익숙한 에이전트와 수시로 소통하고 만나면서 관계를 쌓고 있다. 얼굴도 모르고 레퍼런스도 없는 신규 에이전트와 일하고 싶은 대형 선수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에이전트 자격 시험을 통과해도 선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잖다.

**Q**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선수 숫자에 제한이 있지 않나요?

**A** 구단별 3명, 총 15명이 상한이다. 그런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이보다 많은 선수를 교묘하게 모두 관리하는 에이전트도 있다. 에이전트 공인을 받은 지 2년 이내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현재 국내 프로배구에는 외국인 선수들만 에이전트들이 구단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국내 선수들은 구단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에이전트 중 3분의 2는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 Q** 에이전트 중 얼마나 선수와 계약에 이르지 못하나요?
- A** 실제로 에이전트 중 3분의 2는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에이전트 자격만 얻었을 뿐 실제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에이전트 공인을 받은 지 2년 이내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55만원을 내고 시험을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2년 자격이 취소된 뒤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 Q** 소액 연봉 선수들을 대리하는 것은 어떤가요?
- A** 소액 연봉 선수들은 사실 에이전트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봉 자체가 적은데다가 에이전트에 지급할 10% 안팎

수수료도 부담스러워 한다. 소액 연봉 선수들은 구단이 제시한 연봉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이들은 연봉을 더 받거나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것보다는 일단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Q** 국내 농구와 배구 에이전트 현황은 어떤가요?
- A** 국내 경기 단체가 별도로 실시하는 대리인 자격시험은 없다. 국내에서도 에이전트로 활동하려면 국제농구연맹(FIBA), 국제배구연맹(FIVB)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선수들은 대리인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 Q**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국제농구연맹 에이전트 시험을 통과해도 NBA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 NBA는 NBA 에이전트 제도를 별도로 운용한다. 유럽 선수들도 국제농구연맹 에이전트를 고용한 뒤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NBA 에이전트를 따로 쓴다. 한국 에이전트가 유럽 선수와 계약한 뒤 미국 NBA 에이전트를 통해 NBA로 선수를 보낸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다.

- Q** 유럽 농구 선수들이 NBA로 진출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A** 일단 국제농구연맹 에이전트와 계약한다. 그를 통해 현재 구단과 연봉 협상, 유럽 내 다른 구단 이적 등을 진행한다. 그러다가 만일 NBA로 가려고 한다면 NBA 에이전트를 따로 고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국제농구연맹 에이전트와 NBA 에이전트가 서로 공조하기도 한다.
- Q** 한국 에이전트로 NBA에서 활동하는 건 가능한가요?
- A**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NBA에 갈 만한 우리나라 선수가 있다면 그와 대리인 계약을 맺고 NBA 에이전트를 통해 미국 무대로 진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 중 실제로 NBA로 갈 만한 선수가 거의 없지 않다.

**스포츠 에이전트의 길... 장기간 끈기, 노력 있어야 결실 기대**

**Q** 에이전트 시장은 블루오션인가요, 레드오션인가요?  
**A** 시장이 넓어지고 있어 해볼 만한 일 역시 점점 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 주기를 꺼리는 대형 선수들이 적잖다. 오히려 에이전트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대리인을 바꾸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신규 에이전트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무척 어려운 환경이다.

**Q** 이윤만 추구하는 대형 선수들이 많나요?  
**A**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준 에이전트를 버리고 수수료를 안 받거나 계약금을 주겠다는 에이전트로 쉽게 옮긴다. 신의보다는 돈을 좇는 것이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 유명 선수에게 접근해 온갖 당근책을 제시해 선수와 대리인으로 계약한 뒤 구단, 감독 등과 짜고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켜 수익을 나누는 에이전트도 있다.

**Q** 에이전트에 도전하고 싶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A** 오랫동안 끈기 있게 버텨야 한다.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지쳐서는 안 된다. 감정을 최소화하면서 일을 냉정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그것도 한 개 종목 에이전트만 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 다른 종목으로, 다른 영역으로, 다른 국가로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 요즘은 선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활성화하고 있다. 에이전트가 향후 상당한 추가 수익을 올릴 만한 분야다.

**Q**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바로 창업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존 대형 에이전시에서 입사해 업무를 배우고 네트워크를 넓히면서 선수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후 대형 선수 몇몇을 데리고 독립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걸 싫어하는 기존 에이전시들이 에이전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고용하는 걸 꺼리는 경향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

글을 쓴 김세훈은 1999년부터 스포츠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다수 국제대회를 취재했고 많은 종목도 담당했다. 지금은 국가체육정책, 학교체육,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 동호인 경쟁 시장, 스포츠산업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김세훈의 스포츠N'이라는 기명 칼럼을 보면 김 기자가 추구하는 방향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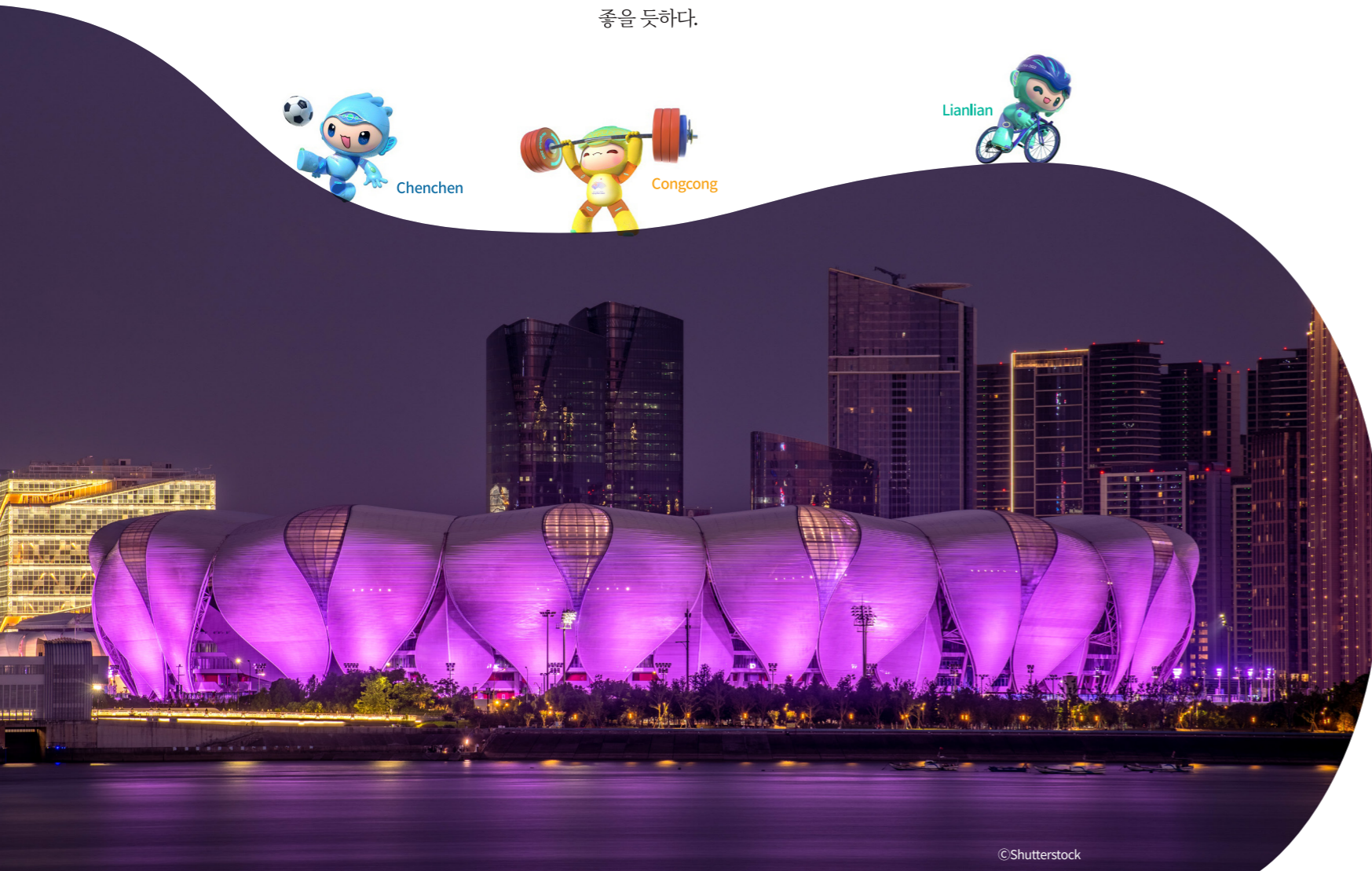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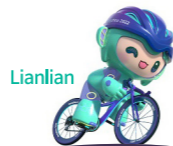


#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포츠판 중국몽 될까?

50억 명 가까운 아시아인의 스포츠 제전으로 불리는 아시안게임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일 동안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스포츠파크 경기장에서 막을 올린다. 참가국은 45여 개국으로 총 43개 종목에서 482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

## 북한 참가 확실할 듯

이번 대회는 북한의 출전이 거의 확정적인 사실 때문이라도 한국에는 특히 주목을 끌 스포츠 행사일 수밖에 없다. 원래 북한은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만약 이 징계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다행히 징계가 풀렸다. 이후 각종 국제대회 참가가 예상됐다. 최대 우방국인 중국이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실제로도 북한은 지난 5월 중순 대회에 출전할 수백 명에 이르는 예비 선수단 명단을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전이 거의 확실하다고 단언해도 좋을 듯하다.



©Shutterstock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라라 봉 카르노(GBK) 메인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식 당시, 대회가 차기 개최지인 중국 항저우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을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시키려는 계획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회 개막이 임박했는데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나 보도가 없다면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 대회 준비는 완벽에 가깝다고 봐도 좋아

현재 대회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좋다. 항저우 시민들이 대회 개최를 1년여 연기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다. 항저우 시민 하오공민(郝公敏) 씨가 “항저우 시민 대부분은 대회가 우리 시에서 열리는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지난해에 열렸다면 대회 준비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좋아졌다. 여유 있게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봐도 된다. 많은 관광객도 와서 대회를 직관하면서 항저우의 진면목을 느끼기를 바란다”면서 즐거워하는 것 역시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항저우시와 시민들 역시 조직위원회 못지않게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오가오위안(姚高員) 시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적 스포츠 행사의 성공 여부는 대체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결정적이라고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이번 대회는 성공을 자신해도 좋다고 본다. 1250만 명 시민이 모두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대회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도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을 넘어 세계

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시후(西湖) 호수 주변에 산재한 각종 상점의 거의 모든 직원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면 더 이상 설명은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 시에서도 이에 대한 감사로 향후 1년 동안 이들 상점에 부과할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에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중국 스포츠의 괴력을 증명하는 현장

당연히 대회 성적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압도적인 파워가 증명되는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대회가 100%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려스러운 대목도 분명 존재한다. 우선, 판정 등에서 중국의 텃세가 심할 것이라는 우려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 열린 각종 대회에서 나온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능성이 높다. 만일 현실로 나타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대회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부끄러운 대회가 될 수도 있다. 각종 경기장이 도박의 현장이 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특히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축구나 탁구 경기 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의 프로 축구 슈퍼리그가 도박으로 인한 승부 조작, 뇌물 수수, 엉터리 판정 등으로 멍들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는 절대 기우라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중국인들이 도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회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 중국 체육 당국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개막식 참석과 개최 선언을 일찌감치 결정한 것도 이런 기대감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지 않나 싶다. 한마디로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心心相通@未來)”라는 대회 슬로건이 진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이제 9월이면 적어도 중국에서는 “모든 길은 항저우로 통한다”라는 말이 유행할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 ☼

글을 쓴 **홍순도**는 기자 경력 40년 차의 현장 언론인이다. 그중 20년은 아시아투데이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다. 평생 중국을 화두로 언론인 생활을 했다. 작가와 번역가로도 활동하면서 160권의 역·저서를 출판했다.



# ‘패션 코어’를 스포츠로 채우다

인체의 중심부인 척추·골반·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인 이른바 ‘코어 근육’은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패션에도 소위 콘셉트라 부르는 ‘코어’가 존재하며 요즘 ‘패션 코어’의 중심을 스포츠가 채우고 있다는 것.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포츠 패션 콘셉트 세 가지를 살펴보자.

## ‘축덕’에서 뉴진스까지, 블록코어(Blokecore)룩

축구팀의 유니폼을 패션 아이템으로 삼는 블록코어룩이 유행이다. 여기에서 블록(Block)은 영국에서 주말마다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이나 펍(Pub)에 모이는 축구 마니아를

지칭하는 일종의 신조어다. 여기에 ‘코어룩’을 붙인 축구 유니폼 패션이 최근 트렌드의 중심에 우뚝 선 것이다. 영국의 23세 인플루언서 브랜던 헨틀리는 2021년 12월 26일, 파란 축구 유니폼에 청바지, 아디다스 운동화를 매칭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 ‘Hottest Trend of 2022: Blokecore’라는 제목을 붙여 SNS에 업로드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26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해당 SNS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돼 일종의 밈(Meme)으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들이 축구 유니폼에 자신만의 아이템을 섞은 패션을 선보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블록코어룩의 유행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8월 데뷔한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곡인 ‘어텐션(Attention)’ 뮤직비디오에 저지 유니폼을 입고 나오면서 블록코어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딜 가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일상 패션으로 거듭났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팀 상의를 입었다고 해서 맹목적인 동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은 그저 디자인이 예뻐서 그 축구 유니폼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코오롱Fn  
고프코어룩

고프코어룩의 인기는 최근 몇 년간 성장이 주춤했던 아웃도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례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A사와 B사의 2022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7.1%, 12.5%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도심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 가능한 기능성 워킹화를 출시하는 등 제품군 확대에 힘쓰고 있다. MZ세대도 멋과 기능성을 겸비한 아웃도어 제품에 열광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고프코어룩을 연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산에서나 볼 법한 온전한 형태의 ‘등산복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능성 아웃도어와 일상 패션 아이템을 적절하게 매칭해야 진정한 고프코어룩이라고 할 수 있다.

## 거리로 나선 발레리나들, 발레코어(Balletcore)룩

앞서 살펴본 블록코어룩과 고프코어룩이 SNS의 영향력으로 인해 유행의 길로 들어섰다면 발레를 모티브 삼은 발레코어룩은 이들과 결을 달리한다. 최근 여성 MZ세대 사이에서 발레가 취미로 급부상했다.

필라테스와 발레를 결합한 소위 ‘발레 필라테스’ 학원까지 등장했는데 이러한 인기는 패션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블랙핑크 제니와 트와이스 나연 등이 발레복을 연상시키는 무대 의상을 즐겨 입으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요컨대 발레코어룩은 취미로서의 발레와 패션으로서의 발레가 절반씩 결합된 끝에 탄생했으며 봄·여름 시즌을 맞아 파스텔톤의 여성스러움을 추구하는 패션 트렌드에 힘입어 최근 많은 여성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발레코어룩을 구성하는 패션 아이템은 의외로 다양하다. 발레리나가 착용하는 망사 소재의 풍성한 치마 ‘튀튀(Tutu)’를 닮은 샤스커트, 발레리나처럼 발목까지 내려 주름지게 신는 니삭스, 끈으로 발목을 묶고 굽이 없어 발레슈즈를 연상시키는 메리제인 신발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긴 머리를 리본 끈으로 땡는다면 그야말로 발레코어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발레코어룩을 입을 때도 완벽하게 발레리나처럼 보여서는 곤란하다. 후드티 같은 캐주얼한 상의와 샤스커트를 매칭한다든지 메리제인 신발에 두꺼운 헤어밴드를 착용하는, 그야말로 과하지 않은 아이템 활용이 발레코어룩의 핵심이다. ✨

## 등산복의 일상화, 고프코어(Gorpcore)룩

40~60대의 표상과도 같았던 등산복도 일상 패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등산복을 일상적으로 입는 고프코어룩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코어룩 앞에 붙은 고프(Gorp)는 견과류, 말린 과일 등을 섞은 믹스넛의 일종으로 특히 캠핑 여행 등을 할 때 체력 보강을 위해 먹는 간편식을 의미한다. 연예인 주우재는 바람막이 재킷을 같은 원단의 카고바지와 매칭하며 고프코어룩의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마마무 문별은 등산화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스니커즈를 신은 패션을, 배우 류준열은 반바지에 바람막이 재킷을 맞춰 입은 ‘남친룩’을 선보이며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근 패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성수동에서 자주 보여 일명 ‘성수동 패션’이라고도 불린다.

sports fashion



©M2MPD



# 끝나지 않은 농구 열기! 2022~2023 KBL

2023년 상반기, 농구를 소재로 한 영화 <슬램덩크 더 퍼스트>, <리바운드>가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농구 영화만이 아니었다. 2022-23시즌 프로농구 인기 역시 뜨거웠다. 프로농구가 지난 7개월간 남긴 대장정을 숫자로 만나본다.



## 7개월

2022-23시즌이 진행된 개월 수로 2022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정규리그가 치러졌으며 플레이오프는 2023년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치러졌다.

## 141회

안양 KGC 소속 오마리 스펀맨 선수의 3점 슛 성공 횟수다. KBL 소속 구단으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가장 많은 3점 슛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론제이 아바리엔토스(Rhon Jhay Abarrientos) 선수가 1점 차이인 140회로 2위를 기록했다.



## 54회

각 팀의 정규 경기 출전 횟수이다. 안양 KGC가 37승 17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 삼성이 14승 40패로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서도 최하위 순위를 피하지 못했다.

## 5,905명

안양 KGC와 서울 SK의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 7차전 관중 수로 2022-23시즌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두 팀의 챔피언 결정전은 2~7차전 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으며 누적 관중만 3만7059명이다.

## 9팀

2022-23시즌 KBL 참가팀 수로 대구 한국가스공사, 서울 삼성, 서울 SK, 수원 KT, 안양 KGC, 울산 현대모비스, 원주 DB, 전주 KCC, 창원 LG가 있다.



## 86억 원

10개 팀의 입장 수입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18-19시즌 72억 원을 넘어선 사상 최고 수치다. 특히 KBL 마케팅 플랫폼에는 이번 시즌에만 12만 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는 등 프로농구를 향한 관심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687,303명

2022-23시즌 입장 관중 수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19시즌(86만8567명)의 80% 수준을 회복했다. 정규리그 시즌에는 59만9572명의 관중이, 플레이오프 시즌에는 8만7731명의 관중이 농구장을 찾았다.



## 365회

서울 SK 소속 김선형 선수가 2022-23시즌에 기록한 어시스트 횟수다. 김선형 선수는 같은 팀 소속 선수인 자밀 워니와 함께 이번 시즌 정규리그 MVP로 선정됐다.

## 1308점

서울 SK 소속 자밀 워니(Jammal Warney) 선수의 정규 경기 총 누적 득점 수다. 평균 득점 24.2점을 기록한 자밀 워니는 2022-23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 71표

2022-23시즌 플레이오프 MVP가 획득한 투표수다. 안양 KGC 소속 오세근 선수가 선정됐으며 유효 투표수 총 94표 중 71표를 얻었다.







## 미래 꿈나무들의 명승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체육 꿈나무들의 승부가 펼쳐진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주 개최지인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36개 종목(초등학교 21종목, 중학교 36종목)에서 전국 17개 시·도 1만8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전국체전 못지않은 뜨거운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서울특별시는 35개 종목(초등학교 21종목, 중학교 35종목)에 1100여 명의 선수단(선수 846명, 임원 254명)을 파견해 193개(금66, 은65, 동62)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① 서울 중앙여자중학교 선수들이 수일여자중학교와의 예선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한 후 환호하고 있다.

서울 중앙여자중학교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② 역도 남자 16세이하부 용상 73kg급에 출전한 서울체육중학교 정민준 선수가 힘차게 바벨을 들어 올리고 있다

③ 삼광초등학교와 양포초등학교의 예선 첫 경기에서 가드 윤지성 선수의 속공 장면, 삼광초등학교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왼쪽),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김현기 서울시회의장(오른쪽)이 2023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막식 행사에 동행했다

## 서울 최대 규모 생활체육축제,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서울시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축제의 위상을 뽐내는 2023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이 5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동호인 10개 종목(▲ 생활체조, 파크골프,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농구, 국학기공, 족구, 풋살, 힙합댄스)과 시민참여 15개 종목(▲한궁, 볼로볼, 대형고스톱, 서플보드, 스포츠스태킹, 제기차기, 후크볼, 협동 바운스, 2인 3각, 골프퍼팅, 단체 줄넘기, 볼볼농구, 릴레이게임, 농구 슛팅, 윷놀이)까지 총 25개 종목에서 46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열띤 승부를 펼쳤습니다. 더불어 체육활동에 익숙지 못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핫돌핫돌 홍보존, 스포츠안전 체험관, 아케이드 게임존 등을 운영해 서울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의 재미를 두 배로 높였습니다. 2023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서는 서대문구가 종합 우승을, 은평구와 중랑구가 2위, 영등포구, 관악구, 동대문구가 3위를 기록했으며 모든 자치구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2023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개최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의 힘찬 응원 속에 흥겹게 대회가 시작됐다



단체줄넘기 종목에 참가한 선수들이 힘찬 구령에 맞춰 도움닫기를 하고 있다



시민참여종목 릴레이게임에 참가한 선수들이 환한 웃음 속에 경기를 치르고 있다





시민이 타겟의 가로막대에 공을 걸리게 하여 점수를 얻어내는 타겟형 뉴스포츠 볼로볼에 참가하고 있다



2인 3각 종목에 참가한 선수들이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며 반환점을 통과하고 있다

시민참여종목 단체줄넘기에 참가한 용산구 선수들이 경기 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참여 시민 Mini 인터뷰 - 서대문구 허재준님



Q.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은 어떻게 알고 참가하셨나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체육 분야에 있다 보니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개최 소식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작년에 즐겁게 참가했던 기억이 오래 남아서 개최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어요. 또 태권도장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 들께 성장의 경험과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직접 홍보 해서 함께 출전했어요.

Q. 작년에 이어 서대문구가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했어요. 우승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사실 2022년에 우승했을 때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올해도 우승하니 정말 기뻐요. 특히 함께 참가한 학생들은 청소년 종목인 볼볼농구와 단체줄넘기에 출전해 모두 1등을 차지했고, 학부모님들과 저는 성인 종목인 2인 3각에 출전해 3등을 했어요. 서대문구 우승에 크게 이바지한 것 같습니다(웃음). 올해 종목도 다양했지만 내년에는 청소년과 성인, 어르신이 한 종목에서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이 새로 생긴다면 더 큰 화합의 장이 될 것 같아요.

Q.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배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서울시민체육대축전입니다. 같이 참가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했고, 무엇보다 '서



허재준(아랫줄 가운데) 참가자는 이번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 본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학생들과 함께 참가해 더욱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대문구 대표'라는 타이틀이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일깨워 주더라고요. 각 자치구에서 많은 시민이 참가했지만 서울시민대축전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요.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지만 성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기회잖아요. 한 학부모님께서 작은 운동회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큰 데다가 좋은 시간을 보내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서울시민대축전을 이제 알게 되셨다면 내년에는 함께 어울립시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 2023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교류 개최



지난 5월 18일(목) 올림픽파크텔에서 2023년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우호교류 제주특별자치도 초청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한 제주도 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해 서울시체육회 김성범 부회장과 정규혁 사무처장이 김포공항을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강경훈 사무처장 등에게 환영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는 강태선 회장, 박주한 수석부회장

등 서울시체육회 임원 다수가 자리한 가운데 두 도시의 화합을 다지는 환영 만찬이 진행됐으며, 강태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2박 3일간 진행될 이번 행사에 있어 다치는 인원 없이 서울에서의 일정을 충분히 즐길 것”을 제주도 선수단에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제주도는 생활체육을 통한 각 시도 간의 화합을 위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2023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워크숍 개최



지난 4월 26일(수) 남산 둘레길 일원에서 2023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체육회 신임 임원과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간의 상견례 및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본회 강태선 회장, 박주한 수석부회장, 박지영 부회장, 이장호 부회장, 육현철 이사, 정규혁 사무처장을 비롯해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지도자(감독) 16명이 참석했습니다. 강태선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들과 첫 대면하는 자리로서 바쁜 훈련 중에 행사에 참여해준 감독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서울체육이 바로 서는 데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들이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Run #for You #Be happy! 2023 여성마라톤

여성의 인권 향상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을 달리는 ‘2023 여성 마라톤대회’가 지난 5월 6일(토)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여성신문이 주최·주관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후원한 올해 여성마라톤은 ‘#Run #for You #Be Happy’라는 슬로건에 맞게 남녀노소 모두가 소통하며 마라톤으로 화합의 장을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오프라인 대회로서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참가해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여성 마라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마라톤의 코스는 10km, 5km 달리기와 3km 걷기 등 총 3개 코스로 서울시민들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제공해 대회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 2023 ATP 서울오픈챌린저 테니스대회 성료

지난 4월 23일(일)부터 8일간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ATP 서울오픈챌린저테니스대회에서는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의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2023 서울오픈챌린저테니스대회’는 세계 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대한테니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테니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남자 테니스 대회로 국내 선수들이 그랜드슬램대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테니스 대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4월 30일(일) 열린 단식 결승전에서는 중국의 부윤차오케테가 후주의 알랄산다르 부키치 선수에게 7대6(4), 6대4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정윤성 선수는 일본의 시마즈 유타와 호흡을 맞춰 맥스 퍼셀(호주)-우치야마 야스타카(일본) 조에게 1대6, 4대6으로 패하며 준우승을 했습니다.





## 2023 서울헬스쇼 '서울스포츠과학센터 체험 부스' 운영



지난 6월 13일(화)부터 사흘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도심 속 건강축제 '2023 서울헬스쇼'가 열렸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는 서울스포츠과학센터의 체력측정 부스와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다양한 체력측정 기구들을 체험함으로써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습니다. 한편, 서울헬스쇼에서는 요가, 크로스핏, 건강 진단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최첨단 헬스케어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 2023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지난 4월 28일(금)부터 4월 30일(일)까지 3일간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에서 '2023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45개국 367명의 선수가 참여했으며 리드 종목을 제외한 남·여 스피드 및 볼더링 종목을 위주로 대회가 진행됐습니

다. 서울시체육회 강태선 회장은 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청의 서재현 선수도 큰 기대 속에 참가했으나 부상으로 인해 조기 탈락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스피드		볼더링	
	남	여	남	여
1위	레오나르도 베데리크(인도네시아)	미로슬로브 알렉산드라(폴란드)	메흐디살라(프랑스)	노나 카미호(일본)
2위	룽진바오(중국)	칼루카 나탈리아(폴란드)	토마아 나라사키(일본)	오리 안베르톤(프랑스)
3위	왕산상(중국)	마데리타쿠수미(인도네시아)	천종원(대한민국)	브룩 리보토(미국)

## 전주영 선수,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 보치아 혼성 개인전 고등부 금메달 획득

지난 5월,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주몽학교 소속 전주영 선수가 보치아 혼성 개인전 BC3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 경기에서 전용환 선수(충북)를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거둔 결과입니다. 2023년 대한보치아연맹 '보치아 신인선수'로 선발돼 각종 보치아대회에서 메달을 휩쓴 전주영 선수는 "LA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게 목표"라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 서울시 골볼 선수단, 전국장애학생체전 10번째 금메달 획득

서울시 골볼 선수단(전현수, 남기원, 전인준, 양진호, 홍치호, 이준모)이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0번째 금메달을 손에 넣었습니다. 2009년에 열린 제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첫 출전한 이래 통산 10번째 금메달입니다. 서울맹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시 골볼 선수단은 결승전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콜드게임 승(13대3)을 거뒀습니다. 김영덕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팀장은 "오랜 시간 서울시 골볼 선수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맹학교와 코치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장애인체육의 미래인 학생 선수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 2023 서울특별시장애 전국장애인컬링선수권대회 개최

2023 서울특별시장애 전국장애인컬링선수권대회가 지난 5월 2일부터 7일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컬링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장애인컬링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휠체어컬링 10개 팀(혼성)과 농아인컬링 11개 팀(남7, 여4), 총 126명이 참가했습니다. 농아인컬링부에서는 서울농아인컬링팀이 남녀 동반 우승을 거두면서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남녀 동반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휠체어컬링부에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팀이 강원도장애인체육회팀을 13대5로 물리치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서울시청 휠체어컬링팀은 3위에 자리했습니다.









# 2023 한강수상 스포츠체험

가까운 한강에서 즐기는 이색 수상스포츠!



☑ **기간**

2023. 6. 3.(토) ~ 9. 3.(일) / 총 20회

☑ **장소**

더리버마리나(반포 한강공원)

☑ **대상**

서울시민(12세 이상)

☑ **체험종목**

요트, SUP, 카약, 블랙캣요트

☑ **신청방법**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참가비**

10,000원 / 1인 (참가자 간식 제공)